



**2018**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

**결과자료집**





# 목 차

2.	기관소개
3.	I.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소개
4.	· 사업소개
6.	· 2018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단체 현황
7.	· 2018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세부 일정
8.	II. 17개 운영단체 및 프로그램 소개
9.	· 극단여정
13.	· 극단해풍
18.	· 드림꿈센터
24.	· 모이다아트협동조합
30.	· 모퉁이극장
35.	· 문화소통연대이야기
40.	· 미디어교육연구소
45.	· 바투아트
49.	· 상상편집소 피플
54.	· 아트커뮤니티센터라운
58.	· 예술연구소 두드림
62.	· 움직임연구소 마르
66.	· 커뮤니티아트센터 숲
72.	· 클래식라디오
77.	· 함께사는문화마을 공동체
85.	· 햇빛연극단
93.	· 햇살나무도서관
98.	III.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 경상권 연수
102.	IV. 전문가 컨설팅
106.	· 2018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수행단체 컨설팅 결과 논의
112.	V. 참여자 만족도 (개별 프로그램)



**부산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을 통해 부산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부산의 창의와 품격을 갖춘 문화도시로 변화시킨다는 미션을 가지고 지난 2009년 1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창작기반 조성과 시민을 위한 문화서비스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문화재단은 문예창작, 학예진흥의 지원을 통하여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 하고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 문화창작기반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부산을 창의와 품격을 갖춘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I.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소개



## 1. 사업소개

### ■ 사업명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지원

### ■ 사업목표

#### ▶ 새로운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발굴과 공유 확산

- 지역의 잠재적 문화예술 자원 발굴, ‘부산다움’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이해 제고
- 지역 주민과 예술가들의 소통을 기반으로 지역의 자생적 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

#### ▶ 문화예술로 소통하는 지역공동체

- 의식적인 예술교육이 아닌 일상 속에서의 주민의 공동체 활동을 기반으로 한 주민 참여 예술 활동을 통해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단체의 지역 안착을 도모함
- 지역의 문화와 창의적 표현력을 접목시킨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지역에 대한 관심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여

### ■ 사업추진방향

#### ▶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16개 구·군으로 확대

- 단체와 지역 향유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내 문화예술 이슈를 도출, 주민들의 일상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개발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지원규모 : 294,000천원
- 지원대상 : 문화예술교육 운영 역량을 가진 단체·기관·시설
- 향유대상 : 문화예술교육 취약계층을 포함한 일반주민(※아동, 청소년 제외)
-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
- 주 관 : (재)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협 력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 공모유형

### ▶ 기획공모 (프로그램 지역 정착화): 2년 연속지원

- 지역 자치구의 협력을 통한 지역 주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지역사회 조사활동 기초로 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계획 제시
- 동래구 수안인정시장 희망정류소를 중심으로 2017년 개발된 '감지덕지도 동래' 프로그램 활용, 운영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방안 제시
- 부산진구 당감동 행복마을을 중심으로 '본동마을'(삼지공원 포함)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방안 제시
- 잠재적 가치를 지닌 문화예술 자원 연구를 통해 지역의 자생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 지원예산규모(2018년도 기준): 25,000,000원~30,000,000원

### ▶ 일반공모 (신규단체 발굴 및 프로그램 안정화)

부산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이 가능한 문화공간 및 교육참여자를 관리 할 수 있는 향유기관을 선정한 후, 교육 참여자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 밀착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제안

**예시** 주민들의 삶의 경험을 주제로 한 학습내용

- 사전수요조사를 통한 지역환경과 학습자 분석에 근거,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연속성이 이루어지도록 지속 가능한 주민참여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권 속 문화향유 접근기회 확대 및 보장

**예시**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교육 참여자들이 주체적으로 학습한 내용을 지역주민에게 전수 및 향유가 가능하도록 기반조성

○ 지원예산규모(2018년도 기준): 14,000,000원~16,000,000원

## 2. 2018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단체 현황

	단체명	장르	프로그램
1	극단 여정	연극	영도 할머니
2	극단 해풍	연극	재미진 시민극단 "감동진"
3	드림 꿈 센터	통합	청년문화! 세상을 담다
4	모이다 아트협동조합	통합	본동골목 예술 나루터
5	모퉁이 극장	영화	영화도시 부산, 관객을 돌아보다
6	문화소통연대이야기	연극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아줌마들의 수다!
7	미디어교육연구소	미디어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문화놀이터로 초대합니다.
8	바투아트	미술	발! 예술이 피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9	상상편집소 피플	문학	꽃춘, 시(詩)가 꽃피는 마을
10	아트커뮤니티센터 라온	미술	일상은 예술이다
11	예술연구소 두드림	무용	문화나눔으로 희희낙락
12	움직임연구소 마르	무용	무지개가 걸린 동네
13	커뮤니티 아트센터 '숲'	통합	당리동 제석골 할머니들의 행복한 수다 '장수탕 선녀님'
14	클래식 라디오	음악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다!
15	함께사는 문화마을 공동체	통합	오.감.동.래 이야기 침선교실 오.감.동.래 치유극장
16	햇빛연극단	연극	연극예술 창작을 활용한 환경 실천에 앞장서는 지역 노리터(老利據) 만들기
17	햇살나무도서관	통합	그림책과 덩굴덩굴 놀다



### 3. 2018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세부 일정

- 1월 · 사업계획 및 수립  
· 2018년도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설명회  
· 사업공고 및 접수

---

- 2월 · 공모 심의 (1차 서류/ 2차 인터뷰)

---

- 3월 · 16개 단체선정 (기획형 1(부산진구)개, 일반형 15개)

---

- 4월 · 기획형(동래형) 재공모  
· 2018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시스템 및 일모아 시스템 교육  
· 선정단체 지원금 교부

---

- 5월 · 기획형(동래형) 재공모 1개 단체선정 및 지원금 교부  
· 컨설팅 전문위원 간담회

---

- 6월 ·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수행단체 경상권 연수  
(부산:12명, 울산:30명, 경북:16명/광주광역시 일대)

---

- 7월 · 17개 단체 컨설팅 실시

---

- 8월 · 전문가 컨설팅 결과 간담회  
· 2018 부산문화예술교육 수행단체 역량강화 및 정산교육

---

- 10월 · 2018 부산문화예술교육 수행단체 역량강화 (폭력예방교육)  
· 2018 부산문화예술교육 수행단체 국내문화예술교육 기관  
탐방연수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예술치유허브센터 등)

---

- 11월 ·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축제 참여  
(아트커뮤니티센터 라온, 커뮤니티 아트센터 숲,  
클래식라디오, 함께사는문화마을공동체, 햇빛연극단)

---

- 12월 · 2018 부산문화예술교육 수행단체 네트워크  
· 프로그램 종료 및 정산·실적보고서 제출

II.

## 17개 운영단체 및 프로그램 소개



# 영도 할머니

## 극단 여정



- **단체기관명** : 상리종합복지관 연극팀

---

- **프로그램명** : 머라카노! 내는 영도 멋쟁이 배우다.

---

- **향유기관** : 상리종합복지관

---

- **교육분야** : 연극

---

- **교육대상** : 영도 주민

---

- **단체소개** : 2017년 처음 만들어져서 2년간 영도 주민을 대상으로 영도라는 지역에서 연극 및 뮤지컬을 해온 단체다. 연극에 열정이 넘치는 영도주민들이 모여서 무대에서 신명나게 한판 놀아보는 것이다.

---

- **프로그램 소개** : 영도의 유명한 전설, 영도 할매 이야기를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를 만들어서 대본화 하여 연극을 만들어보는 영도 지역특성화 문화콘텐츠 교육 프로그램이다.

## 1. 올해도 다시 한 번 놀아보자!

작년에는 영도다리에 관한 이야기를 연극으로 올려보았다. 작년에 처음 만들어진 연극 팀이라 다소 우왕좌왕하고 어수선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대 이상으로 너무나 잘해주었다. 이것이 바로 영도 지역 주민들의 유대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연극팀의 대부분은 여성분들이며 나이도 상당하다. 기본 4~50대에서 많게는 70대도 계신다. 이들에게는 어쩌면 연극이 어렵게 다가 갈 수도 있었다. 그중 한 분은 글을 못 적으시는 분 한글을 잘못 읽으시는 분도 계셨지만 1년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연극에 대한 마음을 차츰 차츰 넓혀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는 작년 겨울 영도다리라는 공연을 올릴 수 있었다. 교육생들과 강사들과의 합심으로 이루어낸 성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이 또 사고를 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에는 영도 할머니에 관한 이야기이다. 과연 이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을까?



## 2. 이번에는 영도 할머니 이야기다.

작년에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올해에는 새로운 멤버들도 추가되었다. 올해 연극 팀은 한층 더 풍성해진 것이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영도 할머니 소재로 대본 작업화 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예를 들어 영도를 떠나면 영도 할머니가 노해서 밤에 몰래 빠져 나가야 된다. 영도 떠난 사람들은 사업에 실패하거나 망해서 다시 영도로 돌아온다는 등 다양한 설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그중에서도 우리는 영도할머니가 왜 영도를 떠나면 망하게 하니 안 좋다니 소문이 돌았을까를 생각해보았다. 그리고 우리는 결론을 내렸다. 영도할머니는 아마 이런 생각이었을 것 같다. “느그가 영도를 떠나면 내가 느그를 보호해주지 못 한다이거!”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극을 만들어보았다. 영도라는 지형이 학이 날개로 섬을 품고 있는 모습을 띄고 있다. 지리학적으로도 봉래산에서 바라보는 영도는 한눈에 다 보이지만 영도를 벗어나는 순간 가려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영도 주민답게 지역의 설화 및 전설을 토대로 연극 영도할머니에 대해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 3. 대망의 11월 7일 결과발표회날.

11월 7일 수요일...남들에게 그저 평범한 평일 수요일 일 뿐이다. 하지만 우리 영도 할머니 팀에게는 너무나도 학수고대하던 날이 아닐 수 없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연극을 만든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베테랑 배우들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영도 할머니팀원들의 팀워크와 강사들의 팀플레이를 통해서 정말 멋진 연극이 올해도 한편 만들어 질것이라는 기대가 되어 진다. 연극...절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다. 배우..무대..희곡...관객...등 뭐 하나 빠져도 절대 이루어 질수 없는 것이다. 이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11월 7일 수요일 영도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이루어진다. 프로페셔널 하지 않으면 어떠한가? 우리가 영도를 대표하는 배우들인데! 1년 동안 사계절을 겪어오면서 만들어진 결실을 드디어 발휘할 때가 온 것이다.



<강사 및 참여자 후기>

강사 권혁진

올해로 강사 2년차입니다. 작년에 하셨던 강사님들은 개인사정으로 못하시고 새로운 강사 분들이 오셨습니다. 늘 처음이라는 걱정과 달리 너무나도 잘 도와주시고 수업을 잘 이끌어 나가 주셨습니다. 작년에 아쉬웠고 못했던 부분들은 올해는 많이 채워나가서 교육생들에게 조금 더 멋진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1월 7일 결과발표회를 기대하며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져봅니다.



교육생 형옥조

올해 여정과 함께하는 연극교실 2년차 인데 너무나 즐겁습니다. 매주 수업이 있는 월요일이 기다려집니다. 시낭송이나 수필, 노래 교실등 여러 가지 수업들이 있었지만 한 가지라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다른 수업을 포기하고 상리 복지관 연극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연습하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사선생님과 교육 받으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을 듣는 게 너무 설레고 좋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공연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연습이 조금 미흡한 거 같아서 걱정입니다. 11월 7일이면 무대에 서야 하는데 설레기도 하고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2년 동안 연극을 준비하면서 힘든 점도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파이팅 하겠습니다.

## 재미진 시민극단 “감동진”

극단 해풍



- **단체기관명** : 극단 해풍

---

- **프로그램명** : 재미진 시민극단 “감동진”

---

- **향유기관** : 창조문화활력센터 (문화공동체 지구인)

---

- **교육분야** : 연극

---

- **교육대상** : 부산광역시 거주중인 성인 시민

---

- **단체소개** : 극단 해풍은 2011년 부산에서 부는 해학과 풍자의 바람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창단하여 2017년 북구의 창조문화활력센터에 자리를 잡았다. 지난 8년간 40여 편의 작품을 1,000여 회의 공연과 함께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꿈이는 연극단(2014~현재)”,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시민극단 감동진(2017), 시민극단 몸투레(2011~현재) 등 부산 시민의 연극 향유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까지 활발히 펼쳐 나가며, 문화에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산의 북구 지역이 문화예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

- **프로그램 소개** : 감동진(甘同津)은 극단해풍이 있는 구포지역의 옛 지명이며, “재미지다”등의 방언을 비유하여 “감동지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시민극단 감동진에서는 감동진의 뜻을 이어 1. 아마추어연극인의 꿈을 꾸는 시민들에게 기회의 제공 2. 삶을 돌아보고 힐링하는 문화예술의 체험기회 3. 연극예술의 경험과 상상, 그리고 몸 표현의 연극예술체험을 목표로 나만의 연극 만들기과 북구근대역사관, 구포만세거리, 구포국수 기념관, 그리고 구포시장까지 북구의 역사를 돌아보고 연극을 이용해 상상하여 표현본다.



연극밖에 모르던 바보가 난생 처음 문화예술교육사업의 기획을 맡았다. 연극을 하면서 얻게 된 다양한 깨달음을 통해 삶이 달라진 이 초보 기획자는 연극예술의 힘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다른 이들도 것처럼 연극예술의 힘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삶에 아주 작은 변화가 생길 것이라 믿었다. 그리하여 이 초보기획자가 기획하게 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재미진 시민극단 “감동진”>

그리고 8개월간의 기록.



## 1. 내 안에 사는 장난꾸러기는 8살

참여자 명단을 정리 해 놓고 보니 초반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참여자들의 연령대가 높았다. 문득 걱정이 앞섰다. 재미진 시민극단 “감동진”교육의 초반은 연극놀이로 시작한다.

연극놀이는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추억을 쌓았던 단순한 놀이들에 기초한다. 그 놀이의 규칙은 매우 심플하다. 심지어 초등학교 연극수업에서도 같은 연극놀이를 한다.

‘연기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연극놀이를 아이처럼 즐겁게 할 수 있지만, 연기를 접해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힘들어 하지 않을까? 혹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막상 하면 재미있긴 한데..’



나의 첫 번째 편견이 깨지던 순간이다. 이렇게 환하게 웃어본 적이 언제였던가. 장난꾸러기가 깨어났다.

저 단순한 놀이가 연극을 할 때 가져야할 핵심적인 능력들을 키워준다. 저 단순한 놀이를 단지 해봄으로서 무언가로부터 해방되는 느낌을 가지기도 한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굳어있던 사고들이 아이들처럼 말랑말랑 해진다. 무언가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돼서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것이다. 8개월간의 활동을 위한 준비운동이 완료되었다.

## 2. 나만의 연극 만들기!

‘나를 안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살면서 자신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봤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아가야 하는지 몰랐다. 그리고 그 질문의 해답은 알고 싶은 것이지만, 피하고 싶은 것이기도 했다. 그런데 나는 운이 좋게도 어쩔 수 없이 나 자신과 마주 하는 계기를 얻게 된



것이다. 그 계기는 연기였다. 연기를 한다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된다고 많은 배우들이 이야기한다. 내 연기의 시작도 나 자신에 대한 이해부터였다. 아직 완전한 이해는 이루지 못했지만, 계속 이해하는 과정 중에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연기를 시작한 그 순간이 내 삶이 좀 더 진정성 있게 변한 지점이기도 하다.

생각지도 못했던 나 자신과 만나는 작업들은 낯설어서 설레며 동시에 두렵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하다. 그 용기는 쉽게 생기지 않는다. 내가 수업현장을 지켜보면서

<나만의 연극 만들기>는 참여자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자신과 마주할 수 있게 해 주는 흥미로운 수업이라 느꼈다.

스케치북에 9칸을 나눈다. 가운데엔 자신의 이름을 쓰고 나머지 8칸엔 다양한 질문의 답을 적어넣는다.

- 내 이름, 그리고 나를 지켜보며 떠오르는 첫 번째 감정은?
- 내 이름, 그리고 나를 지켜보며 떠오르는 식물 혹은 동물은?
- 내 이름, 그리고 나를 지켜보며 떠오르는 색깔은?

완성된 스케치북 면을 보여주며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해 나가는 참여자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니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세계가 있으며 그 세계는 모두 존중받아 마땅하다.



### 3. 배우가 되는건 어렵지 않다!

연극놀이는 단지 놀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나만의 연극 만들기는 질문에 대한 솔직한 대답만을 하면 된다. 어떤 능력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누구나 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배우는 누구나 될 수 있다.

결과발표회를 위해 연습을 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모습이 새삼 달라 보인다. 새삼 달라진 그들에게서 배우의 모습이 엿보인다.



#### <감사 및 참여자 후기>

##### 주강사 이상우

문화예술의 접근성이 떨어져 문화예술에 목말라있던 복구의 주민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모이더니, 마침내 15명이 모였습니다. 연극이라는 사회성 높은 예술로 사람이 사는 맛을 느끼고 나누며 시민극단 창단기라는 자부심으로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연극이 자리를 잡는 오랜 기간 이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 시민극단 감동진의 황희영 회장님

시민극단 감동진은 나에게 ‘에이~ 내가 연극을 한다고?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과 걱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가족의 조연으로 살다가 갑자기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감동진 시민극단은 우리 시민들에게 다양한 과정을 통해 내 삶을 연극으로 만들어 보는 값진 기회를 갖게 해주었습니다. 감사하고 멋진 시간들이었습니다.

# 청년문화! 세상을 담다

드림 꿈 센터



- **단체기관명** : 드림 꿈 센터

---

- **프로그램명** : 청년문화! 세상을 담다

---

- **협력기관** : 사)문화복지공감, 부산인권사무소

---

- **향유기관** : 부산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

- **교육분야** : 미술융합

---

- **교육대상** : 20~30대 청년기 장애인

---

- **단체소개** : 함께 꿈을 상상하고, 꿈을 그리고, 꿈을 만들고, 꿈을 나누고자 2003년에 설립된 비영리법인단체이다. 미술을 매개로 감정을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하며 사회와 융합을 위한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연구·개발·보급에 전진하고 있다.

---

- **프로그램 소개** : 미술의 다양한 장르를 감상하고 체험하고 표현함으로써 나<우리<사회로 사고의 확장을 가진다. 개인작품을 통해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성취감을 공동작품을 통해 소속감과

사회성 향상을 도모한다. 차시마다 만든 작품을 모아 서면아트프리마켓에 참여하여 또래문화를 경험하고, 장애·비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으로 지역공동체 만들기에 일조한다.



전포카페거리는 2017년 뉴욕타임스 선정 ‘올해의 세계여행지 52곳 중 한 곳’으로 한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다. 몇 년 전만해도 철물·공구상가로 번성한 이 지역은 도심 뒷골목의 슬럼가였다. 그러나 지금은 독특하고 이색적인 카페와 식당들로 도심 속 여유와 힐링의 거리가 되어 젊은이들의 발 길이 끊이지 않는다. 이곳에 색이 다른 ‘청년문화’를 꿈꾸는 청년들이 있다. 그들은 중증장애가 있는 2~30대 25명의 청년들이다. 대부분 20대 성인이 되면 부모로부터 정신적·신체적·경제적으로 독립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장애를 가진 당사자나 그 가족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사회의 한 일원으로 자립과 독립을 한다는 것은 현 사회 시스템 상 무척 어렵다. ‘청년문화! 세상을 담다’는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에 첫 발걸음을 디디는 일이다. 첫 걸음은 미미할 수 있으나 천천히 쉬지 않고 걸어가면 반드시 우리의 꿈에 도달하리라. 장애·비장애의 단어로 구분되지 않는 세상, 서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를 뿐임을 인정하는 세상, 그래서 함께 살아 가야 하는 문화공동체 세상을 우리는 꿈꾼다.

## 1. 봄바람 살랑이는 4월 어느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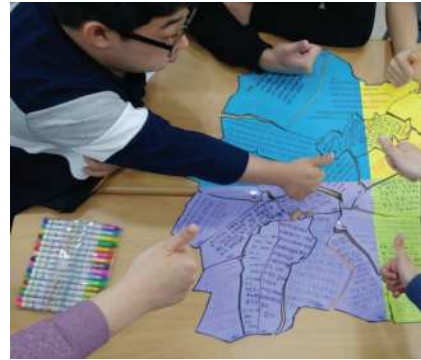
강의실 문을 여는 순간 누군가의 얼굴이 강사 코앞까지 스윽하고 다가온다. 잠시 당황스러웠다. “통도환타지아에 가고 싶어요~통도환타지아에 가고 싶어요~통도환타지아에 가고 싶어요~”를 되뇌더니 아무 일 없었던 듯 썩하니 뒤돌아서 새초롬히 자리에 가 앉는다. 병익씨와의 첫 만남이다. 한지 책을 만들던 날, 한지에 코를 대고 고개를 가우뚱거린다. ‘월 하려는 걸까?’ 궁금해진다. 한참을 그러고 있던 병익씨는 “선생님, 빨간색...음...빨간색 한지에서 향기가 나요. 따뜻해요!” 한지로 꽃을 만들어 볼

이고는 다시 냄새를 맡더니 “선생님, 꽃이 달콤해요!”라고 말한다. 병익씨는 색으로 자신만의 향기와 느낌을 표현한다.

다연씨는 이곳에서 제일 나이가 많다. “내가 언닌데...”라며 슬쩍 말을 놓는다. “저는 선생님인데요.”라고 하면 ‘구두 예쁘다, 신고 싶다’ 탄칭을 부린다. 다연씨는 여느 아가씨처럼 옷과 구두, 액세서리, 화장에 관심이 많다. 강사들의 단복을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어디서 샀는지 얼마인지 초관심을 보인다. 그러다 작품을 시작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안 할래요.”라며 쌀쌀맞게 말한다. 관심 있는 것과 관심 없는 것이 명확하다. “힘들어요? 그래도 이걸 다연씨가 해야 할 일인데 어찌죠?”라고 하면 옆 사람도 보지 않고 오롯이 작품에만 몰입한다. 복잡한 작업도 한 번 알려주면 혼자서 거뜬히 해 낸다.

영훈씨의 글씨는 어릴 적 기억을 잠시 소환시킨다. 칸칸이 정사각형으로 빼곡한 노트에 처음 글씨를 배우던 그 때... 칸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모든 신경을 연필 끝에 쏟고서는 정성을 다해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갔었다. 영훈씨는 줄과 칸이 그려진 곳에 글을 쓰듯 신명고딕체로 반듯 반듯하게 글씨를 써 내려간다. 모든 글씨가 인쇄로 찍어 낸 듯 오와 열이 바르다. 여느 한글서예작품을 보는 듯 하다.

그들에게 있는 특별한 재능들이 하나하나 보이던 날이었다.



## 2. 한 여름날의 정지된 낮선 시선

강렬하게 내리쬐는 햇살에 숨이 턱까지 차오른다. 조금만 걸어도 얼굴에 구슬방울 땀들이 전력질주를 한다. 일상 속 거리풍경들을 찬찬히 들여다본다. 익숙한 거리와 풍경은 정지된 사물처럼 보인다. 익숙하기에 무심코 지나치던 거리, 간판, 소원도, 사람들을 포토그래퍼가 되어 낮선 시선으로 바라본다. 여기저기 독특하고 이색적인 간판들이 눈에 들어온다. 소원도에 비친 예쁜 신발 앞에서 신발이 예쁘다며 하염없이 쳐다보던 헤지씨는 신발을 카메라에 담는다. 채원씨는 “간판을 보니 먹고 싶어요!”라며 식당 간판을 찍고, 지민씨는 마네킹이 입은 옷에 플래시를 연신 터트리고



있다. 연일 폭염주의보와 경보가 내려진 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또 나오고 싶다는 지은씨... 늘 다니던 길인데 낯설고 어색하고 신기하다는 예님씨...

장애라는 이유로 한정된 공간에만 있어야하는 그들에게 오늘의 외출은 행복했나보다. 이렇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지역주민의 일원되었다.

### 3. 아나바다장터에서 프리마켓까지

시끌벅적~왁자지껄~

“여기로 오세요~ 좋은 물건 많이 있어요.,”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얼마예요?,” “오천원이에요.,” “이천원 밖에 없어요. 이천원에 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물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응대로 활기찬 장터... 여기는 ‘공감 아나바다장터’이다.

혼자서 물건을 사거나 쇼핑을 한 경험이 그들에게겐 없다. 비장애인들에게 일상인 일들이 장애인에게겐 평범하지 않다. 아나바다장터는 그들에 의해 그들을 위한 평범한 일상을 경험한다. 가지고 온 물건들을 진열하고 서로 의논해서 가게이름을 정한다. 유리구두, 식품가공학과, 해지는 원피스, 크레파스... 멋진 간판들이 세워진다.

물건을 홍보하고 흥정할 때는 청년사업가, 사 가지고 온 물건에 만족하는 똑똑한 소비자, 서로 같은 물건을 원할 때 상대방에게 양보하는 수준 높은 문화인, 남은 물건을 필요한 사람에게 기부하려는 선행까지 다양한 역할을 경험한 시간이다.

청년의 나이... 홀로 무엇이든 할 수 있어야하나 혼자서는 아무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장애인청년들은 아나바다장터 활동으로 ‘우리가 함께 한다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아나바다장터는 놀이마루 앞에서 진행할 프리마켓의 예행연습이다. 이정도면...충분히...나갈 준비는 끝났다.



화요일 오전 10시의 놀이마루 앞. 이곳은 주말이면 프리마켓거리로 변해 젊음의 열기가 넘친다. 많은 청년들이 손수 만들어 온 특이한 작품과 이색적인 퍼포먼스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잡는다. 하지만 그 많은 청년들 속에 장애인청년들은 없다. 오늘은 그 자리에 장애인청년들이 섰다.

평일의 조금 이른 시간이라 거리는 한적하다. 학습자들이 손수 만든 작품들을 진열대 위에 올리며 살짝 걱정이 앞선다. 혹여 비장애인들의 낮선 시선을 학습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생각만큼 물건들이 팔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처음 세상과 정면으로 서는 학습자들이 힘들어 하면 어떡하나... 그러나 이런 걱정은 잠시 뿐... 진열대 위에 학습자들이 만든 작품을 올려놓는 순간 지나가는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학습자들 앞에 선다. “와~ 선생님 옷에 너무 잘 어울려요, 다른 물건도 한 번 보세요, 예쁜 것들이 정말 많아요.” 창호씨가 첫 물건을 판다. 창호씨의 에너지는 다른 학습자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진다. 지은씨와 성일씨는 진열대 앞으로 나가 춤을 추고, 목소리가 예쁜 채원씨와 미소가 예쁜 지원씨는 “저희가 만든 예쁜 물건들이 많아요. 오셔서 보고 가세요. 보는 건 공짜예요.”라며 사람들을 불러 세운다. 장애인청년들의 진정성과 열정에 작품들은 한시간만에 거의 다 팔렸다. 장애인청년들은 물건이 팔릴 때마다 폴짝폴짝 뛰며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작지만 노력의 결과물인 수익금을 보고 모두 환호한다. 수익금을 아프리카 어린이를 돕자는 사람,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돕자는 사람, 아픈 사람을 돕자는 사람 등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수업 초반을 생각하면 상상할 수도 없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장애인청년들은 차시가 거듭되면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들을 언어와 몸짓으로 표현하는데 익숙해져 간다.

늘 누군가의 도움만 받으며 지내온 장애인청년들... 하지만 오늘은 그들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세상에 당당히 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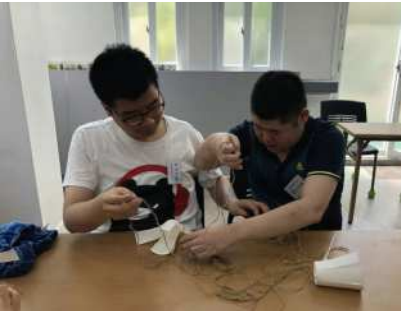


## <강사 및 참여자 후기>

### 강사 후기

“네모 모양을 만들어 볼까요?”... “네모 모양이 뭐예요?”라고 다시 묻는





다. 오른쪽 방향으로 계속 돌리라고 작업규칙을 알려주면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왼쪽으로 돌렸다가는 결국 원위치로 되 돌아온다. 강사가 1:1로 옆에 있으면 작업을 하다가도 다른 사람 쪽으로 움직이면 하던 작업을 멈추고 가만히 앉아있다. 1차시 수업의 난감함은 지금도 생생하다.

4년간 성인장애인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지만 이렇게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학습자들은 처음이다. 차시가 거듭되면서 알게 되었다. 그들에게 체계적인 문화예술교육의 기회가 없었다는 것을...

문화예술교육의 힘은 대단하다. 사람들을 상상 그 이상으로 변화시킨다. 누군가 수업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하면 한 사람이 "집중의 박수"를 외친다. 그럼 모두 하나가 되어 ' 짹짹' 손뼉을 맞춰 박수를 친다. 작품제목 하나 붙이는 것, 자신의 생각을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힘들어 하던 학습자들은 이제 먼저 하겠다며 손을 든다.

어떤 색을 좋아하는지, 무엇에 관심 있는지, 뭘 잘하는지 고민하고 선택해 본 적 없던 그들...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스스로 찾아가고 있다. 빠르지는 않지만 천천히 그들만의 속도로... 그들만의 청년문화를 세상 속에 담아가고 있다.

#### 참여자 후기(재영씨)

친구들이랑 서면상가거리를 걸었어요. 오늘은 사진작가가 되어 보는 날이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리를 걸으며 휴대폰 카메라로 사람, 건물, 길, 간판 등을 찍었어요. 늘 집에서 센터까지 정해진 길을 앞만 보고 다녔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 재미있었어요. 멋진 간판도 있고, 웃긴 간판도 있었어요. 그리고 보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 아니었어요. 늘 다니고 있었지만 옆을 보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시간은 처음이었어요. 길을 걷는 많은 사람들 속에 나도 있었어요. 나도 그들과 다르지 않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진짜 어른이 된 기분이 들어 행복했어요. 자주 나가고 싶어요.



## 본동골목 예술 나루터

모이다 아트협동조합



- **단체기관명** : 모이다아트협동조합

---

- **프로그램명** : 본동 골목 예술나루터

---

- **향유기관** : 당감종합사회복지관-당감행복마루카페

---

- **교육분야** : 1기-연극(음악,무용), 2기-기획 및 공예강의

---

- **교육대상** : 당감동 지역주민

---

- **단체소개** : 모이다아트협동조합은 부산 지역 안에서 '시각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로 문화예술교육, 거리예술, 전시, 축제 기획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스토리텔링 벽화작업, 빈집아트 등 실험적인 작업들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안리 및 조방아트마켓과 지역별로 차별화 된 아트마켓 기획 및 운영을 하면서 작가들에게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예술작품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프로그램 소개** : 동네골목이야기를 문화예술교육에 접목하여 연극과 음악, 시각예술로 접근하여 1기, 2기로 나누어 운영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삶이 바로 문화'현장을 토대로 공동체의식을 신장하여 생활문화공동체실현을 모토로 삼고, 하여 최종적으로 2018년 주민들과의 라포형성과 2019년 주민대상으로 문화예술관련자 양성 및 지속적인 마을축제 운영을 통한 정착화를 목표로 한다.



## 1. 1기 할머니들과의 첫만남



처음에는 50대 이상 당감동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트로트+뮤지컬을 접목한 트롯컬 공연 교육을 기획하였으나, 당감동 지역주민 특성상 고령 노인분들의 비율이 높고, 또한 문화예술교육 대상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었다. 하여 최종적으로 모집된 인원은 본동 노인정을 주축으로 활동하시는 70대 이상 할머니들로 구성되었다. 그러하다보니 원래 교육장소였던 당감행복마루카페의 지역적 위치상 2층 계단을 오르셔야 하는데 거동이 힘드신 분들이 많아 부득이하게 교육장소를 행복노인정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이분들이 강의자체에 흥미를 느끼실 수 있을지, 강의참여는 꾸준히 하실 수 있는지 우려가 되었지만, 오히려 정원을 넘는 참가자분들이 생기고 출석률이 90%이상에 육박하는 기록을 세웠다. 물론 역동적인 연극적 요소들이 많이 배제된 울동수준의 가벼운 움직임으로 변경되었지만, 이 또한 당감동만의 특색 있는 트롯컬로 재탄생되었고, 일본장수마을을 표방하는 부산의 대표적 장수마을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 2. 축제공연준비 수업 막바지 어느 날

최종 공연에 올릴 트롯컬 준비를 하는 1기 마지막 수업 날이었다. 할머니들로만 구성되어 대여 한 현대한복의상을 곱게 맞춰 입으시고 마을축제가 시행될 골목으로 리허설을 나갔다. 수업 최초로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 진행되다 보니 어르신들의 들뜬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늘 지나다니는 우리 마을 골목이지만 특별한 옷을 입고 새로운 느낌으로 나들이 나가는 기분이라고 하셨다. 이번 수업을 통해서 우리네 사는 마을을 그저 개발되지 않는 곳이 아닌, 색다른 매력의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참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 말씀에 그간의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듯했다. 오히려 저희가 이런 귀중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할 뿐이라고 말씀드리니 작게 미소 지으셨다.

## 3. 마을축제준비

20대 이상 당감동 주부들로 이루어진 2기분들의 수업은 1기 할머니들 수업하고는 또 다른 방식의 새로운 느낌이었다. 무엇보다 현재 당감본동에서 활동하시는 마을활동가 및 봉사자분들이 대부분 이시다보니 공예강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아 처음 예상했던 작품의 퀄리티보다 훨씬 우수한 결과물이 나왔고, 이미 자체적으로 마을조성에 힘쓰는 이력이 있으시다보니 축제 행사와 프로그램 기획 아이디어가 마구마구 쏟아져 나왔다. 적극적으로 주민 스스로 노력에 따라 결정되어 지는 것이 행복한 마을조성이라고 하시며,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임을 몸소 실천하시는 분들이었다. 기획과 공예를 접목한 새로운 형식의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 두려움과 우려가 많았지만,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인하여 11월에 있을 마을축제가 매우 기대된다.

## <강사 및 참여자 후기>

### 1기 주강사 김가영



수업을 시작할 당시 기존 계획보다 어르신들의 연령대가 훨씬 높아 초기에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평균 연령 80 세다보니 2층 오르는 것을 힘들어 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10분 이상 서서 안무를 하시는데도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수업내용을 대폭 수정하여 기존의 트롯 컬 형식을 없애고 뮤지컬의 갈라쇼 형식으로 대체하여 기존에 계획하였던 움직임들을 변형시켜 어르신들이 쉽게 배울 수 있고 편한 움직임 위주로 안무를 구성하고 트로트 또한 어

르신들이 즐겨 부르시는 노래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업 때 의상과 악기를 갖추고 연습하신 노래와 안무를 발표하며 수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 1기 보조강사 박다은

처음으로 비전공자들의 중심으로 수업을 했을 때 전문적인 용어나, 수업 방식에 대해 어려운 점이 많아 몇몇 착오들이 있었지만, 수업을 듣는 분들의 나이 때와 그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쉽게 접근해서 조금 수월한 수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머님들이 체력적으로도 힘들어 하셨었고, 공연에 대한 부담감도 있으셨는데 수업을 진행하시는 선생님과 배우시는 분들의 서로의 눈높이에 맞춰서 수업 진행을 하다 보니 점점 더 시너지효과도 생기고 이 수업에 대해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재미를 붙이시고 잘 따라와 주셨습니다.

수업을 하면서 좋았던 점은 선생님이 앞에서 가르쳐주면 어머님들이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고 정말 이 수업을 즐기며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보다 좋은 수업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수업들이 많이 생성이 되어서

노인분들이나 비전공자분들께 조금이나마 삶에 활력을 줄 수 있는, 활력을 받는 일들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2기 주강사 모상미

당감본동마을 예술 나루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마을 주민 스스로가 마을에 대한 관심과 마을 문제나 세대 간의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매개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에 중요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기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참여자 스스로가 마을에 대한 관심과 기획을 하면서 좀 더 마을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습득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와 저희단체가 빠져나가도 의욕을 가지고 자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자 합니다. 다행히 관심과 열정이 많으셔서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해 주셔서 감동입니다.



## 2기 주강사 정지원

수업참여자들께서 수업에 대한 호응이 좋아 수업을 즐겁게 임할 수 있었습니다.



작가라는 타이틀과 수업을 진행하는 강사로서 맨 처음 다가가갈 때는 어려워하시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참여자들이 낯선 장르라는 것과 이전에 해왔던 수업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어 조금 이해하시는 것을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른 작가들의 작업을 보여드리고, 수업에 접합하여 참여자들의 창작물도 작품으로써 만들어진다는 것 또한 직접 느끼며, 함께 만들어 나아가니 흥미도가 점점 높아지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함께 수업을 만들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 2기 보조강사 심아영

일반적인 수업이 아닌 동네 주민분들이 스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기획형 수업이라 잘해나갈 수 있을까? 흥미를 가지실까? 걱정이 많았던 수업이었으나, 마을과 골목에 대하여 주제를 가져오면 마을의 현실적 문제점이나 고민거리 등을 함께 토론하며 쉬는 시간조차 쉬지 않고 열심히 수업에 임해주시는 참여자분들을 보며 신이나 더 열심히 수업에 임하였던 것 같습니다.

골목을 함께 거닐며 골목이 삭막해질까 화단을 만드셨던 이야기, 우체통을 각 집마다 만들어준 이야기 등을 들으며 당감동 주민분들의 마을에 대한 애정을 듬뿍 느낄 수 있었고,

골목의 사진을 찍어 그저 지나가는 길 일지 모르는 ‘골목’을 새롭게 재해석 할 수 있도록 사진 위에 원하는 그림 그리기, 젠탱글 등을 표현해보며 참가자분들과 상호작용이 되는 것 같아 즐거웠습니다.

## 영화도시 부산, 관객을 돌아보다

### 모통이극장



- **단체기관명** : 모통이극장
- **프로그램명** : 관객문화교실
- **향유기관** : 모통이극장
- **교육분야** : 영화
- **교육대상** : 중구 지역 직장인과 지역주민, 일반 시민
- **단체소개** : 모통이극장은 영화를 매개로 일반 시민과 관객들이 서로 사귀고 교류하며 상호학습을 도모하여 관객들이 영화 생태계에 건강한 한 축이 되어 영상문화에 기여하는 문화생산자가 될 수 있도록 시민중심 영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관객문화응원단체이다.
- **프로그램 소개** : <관객문화교실>은 중구 시민 관객들의 적극적, 능동적인 영화 문화 향유를 돕는 영화 향유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역의 시민 관객들이 관객문화에 대한 개념을 갖고 영화단체 및 시민단체와 연계된 다양한 영화문화체험을 통해 부산의 영화문화에 대



한 이해를 넓혀가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천만 관객 중 한 명이 아닌 영화의 감동을 간직한 관객 한 명 한 명이 가진 고유한 ‘영화사’를 공유하고 관객으로서 영화문화를 만들고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 1. 부산의 영화문화, 생생한 현장을 초청하다



부산에는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영화제와 시민 중심 상영 모임들이 30개가 넘는다고 한다. 하지만 정보가 공유되지 않거나 참여 방법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 이번 관객문화교실에서는 관객의 주체성과 역량을 일깨우고 문화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영화문화의 다양한 장을 공유하는 시간들을 마련했다.

김민경 감독이 함께 한 시간에는 독립영화를 보며 부산의 독립영화 제작과 배급, 상영 환경의 열악한 실태를 돌아보고, 영상연구모임 29.97 작가들과 함께 실험영화들을 보면서 관객들의 다양한 영화 보기 운동이 문화 다양성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활동을 체험했다. 강정룡 부산국제영화제 서비스 개발팀장을 초청하여 시민들이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여하고 즐기는 방법들을 들어보고 김경연 부산국제단편영화제 프로그램 팀장과 함께 영화제 출품작을 보면서 단편영화의 매력을 한껏 느끼기도 했다.

독립서점을 운영하는 이민아 시인에게 문화 공유와 참여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시민들이 문화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주체임을 확인하기도 했다. 부산의 영화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분들과의 만남을 계기로 수업시간에 소개된 작가의 전시를 보러 가거나 상영 모임을 찾는 수강생들도 생겨나고 있다. 멀티플렉스에서 개봉영화만을 보던 관객들이 이렇듯 스스로 다양한 선택지를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고 영화문화의 다양성을 살리는 길이 아닐까?



## 2. 독립다큐멘터리 개봉작을 함께 봐요!

관객문화교실 수업 중 ‘다큐멘터리 알기’ 시간에 박배일 감독의 <소성리> 개봉 소식을 듣고 단체관람을 했다. 부산에서 활동하는 다큐멘터리 감독의 작품을 소개하는 좋은 기회였다. 수강생들에게 특별한 문화체험이 될 수 있도록 배급사인 오지필름과 사전 협의를 통해 영화의전당 상영시간표도 조정하고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하였다. 관객문화교실 수강생들이 상영 전 오프닝 진행과 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에서 모더레이터를 도맡아 관객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나갔다.

관객과의 대화는 영화감독과 평론가가 영화에 대한 설명을 하고 관객들에게 질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관객들의 소감을 들은 뒤 감독이 이에 응하여 이야기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관객 각자의 진지한 소감과 의견들로 대화의 열기가 식지 않아 뒤풀이까지 이어졌다. 쉽고 편하게 영화를 혼자 보는 문화가 보편화되는 속에서도 극장



에서 함께 보는 문화가 지속하는 이유는 영화 전후 이어지는 생생한 만남과 대화가 빚어내는 공동체적인 문화 경험이 특별하기 때문일 것이다.

### 3.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관객문화를 만나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올해 시민관객들이 주체가 된 부대행사가 마련되었다. 바로 <커뮤니티 비프>라는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이다. 관객문화교실에서는 그중 시민영화커뮤니티들이 상영회를 직접 기획 운영한 ‘커뮤니티 시네마’를 찾았다. 부산에서 단편영화의 매력을 알리고 있는 ‘작은영화영화제’에서 마련한 상영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커뮤니티 시네마의 특징과 운영방법에 대해 알게 되는 시간을 가졌다. 커뮤니티 시네마의 취지가 관객문화교실에서 함께 배웠던 관객문화의 비전과 맞닿아 있음을 확인하고 시민들이 영화를 매개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다양함을 체감했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티타임 시간에 관객문화교실 수강생들도 내년 부산국제영화제 커뮤니티 시네마에 시민영화커뮤니티로 참여하여 상영회와 이벤트를 만들어보자는 의견들이 모여 새로운 계획들을 다지기도 했다.



<강사 및 참여자 후기>



강사후기

“처음 관객문화교실을 열 때와 비교해 보면 지금 수강생들의 문화적 성숙이나 관객으로서의 자의식, 관객문화의 이해도는 기대한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30여명

의 수강생들이 함께 어울려 긴 시간을 만나면서 영화를 보고 친구가 되는 것이 각 개인의 일상뿐만 아니라 영화문화의 지층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현장에서 느꼈다. 지속하는 것의 힘과 중요성을 체감하는 자리였다.” (김○○강사)

“영화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많이 찾아다니는 편인데 보통은 영화에 관한 지식이나 영화 그 자체를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았다. 이번에 참여하게 된 관객문화교실은 이와 달리 관객으로서의 나를 돌아보고, 내가 좋아하는 영화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김○○관객)

“영화 관련 활동을 하는 다양한 단체나 인물들을 만날 기회가 전혀 없는데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감독이나 협회 및 단체들을 직접 만나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어서 영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다.” (홍○○관객)

“문화관련 프로그램을 수강하면 수강일이 끝나면 같이 수강했던 수강생들을 다시 만나기 힘든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수강했던 분들과 많이 친해져서 수강 이후 영화 동호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좋은 영화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좋았어요!” (김○○관객)

“영화를 단순히 소비하는 것을 넘어 향유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관객)

“수강일이 한순간에 지나가서 너무 아쉽고, 내년에 또 듣고 싶어요!” (이○○관객)

##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 아줌마들의 수다!

문화소통연대 이야기



- **단체기관명** : 문화소통연대 이야기

---

- **프로그램명** : 연극을 통한 자존감 회복 프로젝트 [해운대 엘레지]

---

- **향유기관** : 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

---

- **교육분야** : 연극

---

- **교육대상** : 경력단절여성 및 주부

---

- **단체소개** : 2011년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문화소통연대 이야기는 연극 제작 및 공연, 연극 교육을 통해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의 예술 감수성 개발, 문화 복지를 증진을 목적으로 사회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

- **프로그램 소개** : 해운대의 지역적 소재를 바탕으로 한 연극 만들기 과정에 참여하여 일상 속 문화예술교육활동을 구현하고 나아가 재능 기부 활동을 통해 지역 내 문화 공동체로서 자리매김하여 연극으로 윤택한 자신의 삶을 가꾸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 1. 떡 돌리는 새로 오신 식구

몇 년 전부터 연극에 관심을 가지고 몇 번이나 망설이던 세 분의 신입 회원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몇 번 수업 후 떡을 가져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유를 여쭙보니 이랬습니다.

‘내가 하면 더 잘 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문을 자신있게 열고 들어왔지만 연극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몸은 어쩔 그렇게도 생각과는 다르게 표현되는지.. 그리고 발을 어떻게 떼야할지도 모르겠고.. 또 분명 집에서는 대사도 술 술 다 나왔는데 연습장에만 오면 백지장에 벅어리가 됩니다.

이러다가 우리 때문에 공연 망치는 건 아닌지..

발표일이 다가올수록 압박감은 심해지고..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습니다. 분명 잡귀가 붙었을거야! 맞아! 신입 떡!!!

떡을 안 돌려서 그런 걸거야.

이사할 때 잡귀 쫓으려고 시루떡 돌린다고 옛날 책에서 얼핏 본 거 같은데.. “여보세요? oo 떡집이죠? 떡 맞출려고 하는데..”

지금 이 분들은 어느 분보다 더 열성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감도 흘러 넘쳐나구요. 몸짓, 발걸음, 대사요? 음.. 완벽합니다. 하하하!



## 2. 멋진 무대 그리고 다양한 예술적 경험.

해마다 부산에서는 5월 부산국제연극제가 개최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유명 작품(연극)을 초청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값진 예술적 경험을 갖는데요.

전반기 현장학습은 위 행사에 초청된 일본의 신주쿠 양산박극단의 ‘멕베스’를 관람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이 작품을 일본 극단은 어떻게 해석하고 무대화했을까 하는 궁금증 가득 안고 극장을 들어섰습니다. 무대엔 커다란 솃대가 세워져 있고 배경으로는 커다란 달이 우리를 압도 했습니다.

그리고 90분간의 행복한 시간.

또 한 후반기에는 러시아 작가 안톤 체홉의 ‘갈매기’를 관람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부산에서 러시아 연극 특히 안톤 체홉의 작품을 보기란 여간 어렵습니다.

이건 행운이야! 하고 예약을 하였는데 관람 예정일 태풍 때문에 학교는 임시 휴교령에다 TV는 실시간으로 태풍 보도를 합니다. 다행히 오후 들어 바람이 잦아 들어 극장을 향했고 2시간 10분의 런닝 타임.

결코 아깝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 3. 두근 두근... 다가오는 발표회

점점 발표일이 다가올수록 학습자들의 역할에 따라 소품이며 도구 그리고 의상들이 늘어가고 있고 그것과 비례해 학습자들의 높아진 긴장감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프로그램 종료시간 이후에도 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 빈 강의실을 찾아다니며 자체적으로 연습하는 광경은 익숙한 모습입니다.

본 공연은 11월 11일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그리고 재능기부 공연 또 한 2회가 잡혀져 있죠.

‘이제부터는 즐겁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말을 하는 강사나 ‘네’ 라고 대답하는 학습자 마음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서로 격려하고 독려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관계가 바로 연극이며 이런 과정이 추구하고자 했던 예술교육입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멋진 작품이 탄생되리라는 것을.







### <감사 및 참여자 후기>

“화요일이 기다려집니다. 진짜라니까요.”

“우리 연기.. 작년보다 좀 나아졌죠?”

“선생님은 좀 쉬세요~ 00씨 앞에서 좀 봐 줘요”

“00씨는 뭘 잘 하고 00씨는 뭘 잘 하고 또 00씨는..

선생님 보세요~ 이런 팀 없대니까요.”

“이제 우리도 자리 매김할 수 있는 공연을 해야 안 됩니까”

이제 4년 째 만남과 문화예술교육 활동 그리고 공연을 했더니 서로 간 친밀감은 두 말 할 나위 없고 피드백 또 한 거침이 없습니다. 문화소통연대 이야기와 함께 진행해온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그 속에서 자생적으로 탄생한 여성극단 ‘봄’

앞으로 파릇파릇하고 싱그러운 향기 나는 문화공동체로 나아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문화놀이터로 초대합니다.

미디어교육연구소



- **단체기관명 :** 미디어교육연구소

---

- **프로그램명 :** 맘맘맘, 엄마가 만드는 문화놀이터

---

- **향유기관 :** '동화랑 놀자' 작은도서관

---

- **교육분야 :** 미디어

---

- **교육대상 :** 지역주민, 아이를 키우는 주부

---

- **단체소개 :** 미디어교육연구소는 2015년 설립되어 지역에서 미디어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다.

---

- **프로그램 소개 :** 맘맘맘, 엄마가 만드는 문화놀이터는 작은도서관을 자주 찾는 육아기 엄마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다.  
작은 도서관을 매개로 다양한 문화행사들을 직접 기획해봄으로써 문화를 주체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책을 매개로 다양한 예술을 경험해보고, 직접 표현해 보며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한다.

## 1. 엄마들, 함께 뭔가 해보자!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뿌듯함,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조금 허전한 마음... 느껴본 분들 계신가요?

엄마로서의 시간을 커져 가지만, 나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면..

늘 아이와 시간을 보내지만, 어떤 시간들을 보낼까 계획하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곳을 찾으시기를 강추 드립니다.

아직은 아이가 1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엄마들이지만, 엄마이니까, 엄마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도 있습니다.

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 를 늘 고민하는 엄마들과 함께 다양한 고민도 나누고 수다도 떨고, 함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즐기며 한 해 동안 엄마들도 점점 성장해갔습니다.

함께하며, 보내는 시간들은 점점 영양분이 되어가듯 우리를 풍요롭게 했습니다.



## 2.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 오늘은 내가 주인공!

내가 읽었던 한 권의 책을 소개하고 진행자로 나서본 '북콘서트', 이야기를 기획하고 글로 표현하고 함께 완성시켜 본 '엄마가 만드는 동화' ... 제목만 들었을 때는 생소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했는데...

어렵지 않고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어서 꾸준히 참여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함께 부대끼며 수다를 나누며 나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의 진행자로, 소설의 작가로, 촬영 감독으로..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 3. 엄마가 직접 기획한 문화놀이터, 아이들이 즐기다!

2018년 8월 28일 발표회와 함께 프로그램 1기 수료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엄마들은 수료 작품으로 동화책 한 권을 선정해 대본으로 구성하고, 인형을 직접 만들어 인형극으로 발표를 하는 공개방송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는데요, 엄마가 직접 기획한 문화놀이터를 신나게 즐긴 사람들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한 엄마들, 그리고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고자 하는 욕심에 수업이 아닌 날도 동화랑놀자 작은도서관으로 수시로 모여서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며 뜨거운 여름을 더욱 뜨겁게 보냈습니다.

열정을 불태운 만큼, 2018년의 여름과 맘맘맘, 엄마가 만드는 문화놀이터는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 <강사 및 참여자 후기>

허은영 (맘맘맘, 엄마가 만드는 문화놀이터 주강사, 미디어교육연구소 대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에 주강사로 참여한지 4년 차가 되면서 책임감이라는 마음의 무게는 점점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 마을방송국’ 프로그램을 기획해 3년 차를 진행하고, 지난 한 해 열심히 프로그램에 참여한 엄마들과 함께하기 위한 또 다른 프로그램 ‘맘맘맘, 엄마가 만드는 문화놀이터’를 새롭게 열어보았습니다.

이미 지난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셨던 분들과 함께,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이니 함께하자는 지인의 권유로 합류해주신 새로운 분들과 함께, 광고를 보고 참여해주신 분들과 함께 다양한 시도들을 해 보았습니다.

‘아이’ ‘도서관’ ‘책’ ‘엄마’라는 몇 가지 공통분모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기를 나누고 놀이를 만들어가면서 공감하며 유대감을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은 강사로서도 성장했지만, 세 아이 엄마이기도 한 나 자신에게도 무척이나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업에 참여했던 엄마들이 발표회를 앞두고,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아이와 함께 휴일에도 만나서 여러 차례 연습하는 등 열정을 불태웠던 모습이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1기를 마치고 2기까지 계속해서 참여하며 1년간의 긴 시간을 함께 해준 참여자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문정임 (부산진구 부암동)

맘맘맘, 엄마가 만드는 문화놀이터를 하며 현장학습을 통해 ‘모퉁이 극장’을 함께 방문했다. 부산에 이런 곳이 있는지도 잘 몰랐지만, 처음

접하게 된 외국 단편영화제는 흥미롭고 오랫동안 마음속에 여운을 주었다.

이 현장학습을 계기로 수업 중간부터 들어가게 된 곳이 '맘맘맘, 엄마가 만드는 문화놀이터'였고 1기에 이어서 2기까지 즐겁게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어두운 곳에서도 밝게 촬영할 수 있게 하는 팁과 구도 잡는 방법의 사진 찍기 수업, 발성과 발음을 어떻게 해서 말을 해야 하는 가의 '스피치 수업', 성(性)과 관련된 동화책을 통해 우리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성을 이해시키는 빛그림 동화로 참여해본 '낭독극'하기 등등 재미있고 몰랐던 걸 알 수 있게 해주었던 여러 수업을 들어서 좋았다.

여름방학과 맞물려 아이와 함께 수업할 수 있었던 '카드뉴스 만들기'와 신문을 읽고 실행해본 '나만의 신문 만들기' 특히, <년 정말 특별해>라는 동화책을 읽고 아이들과 함께 한 인형극은 각자의 일정 속에서 짬을 내서 몇 번씩 만나 연습하고 협동한 작품으로 잊지 못할 1학년의 여름방학 추억이 되었다.

평소 티비에서 보던 문화체험을 내가 직접 만들고 아이와도 접목해서 놀 수 있는 말 그대로 놀이터였다. 이런 문화놀이에 손 잡아끌어준 허은영, 김은영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밭! 예술이 피었습니다.

## 네 번째 이야기

바투아트



- **단체기관명** : 바투아트

---

- **프로그램명** : 밭! 예술이 피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

- **향유기관** : 대룡영농조합법인

---

- **교육분야** : 생태 융합 미술

---

- **교육대상** : 장안읍 주민대상

---

- **단체소개** : '바투아트'는 기장의 동북쪽 끝 최초 예술마을을 형성한 작은 시골인 대룡마을에서 자연과 예술을 활용한 주민 생태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긍정적인 마을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

- **프로그램 소개** : 생태예술

## 1. 봄봄봄 봄이 오는 소리! 화전으로 오감아트를!



다정한 정감과 자연의 냄새가 곳곳에 묻어있는 시골마을을 돌아다니며 낮은 동산과 들에 핀 꽃과 잎에 쌀가루 반죽을 입혀 자연의 색을 입히고, 조물락 조물락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든 화전은 내 생애 첫 요리예술이었다. 화전을 만드는 동안 나는 향기로 취하고 다양한 고운 색에 취하고, 손으로 감각을 느끼고 코로 맛있는 냄새를 맡고 입으로는 존득존득한 ‘맛’을 음미하면서 어렸을 때 찾아갔던 내 할머니가 생각나는 시간이었다. 오감 아트로 완성된 ‘화전’은 동심 때 느꼈던 잊어버렸던 기억을 떠오르게 하였던 흐뭇한 시간이었다.

## 2. 꽃밭! 예술이 피어나는 손수레 꾸미던 날

모두 막막하게 어떻게 손수레를 완성할지 골똘히 고심하면서 예술가로서의 고뇌 정도는 아니지만 이내 우리네 삶을 표현하는 ‘희로애락’에 맞춰 동그라미 얼굴에 다양한 삶속에 표정들을 ‘씩씩’어찌나 잘 표현하던지. 바닥에 퍽 주저앉아 스텐실 기법으로 오려서 ‘톡톡톡’. 또 망설이길 한참 하다가 어느새 순간 터프한 터치로 모두 협심하여 완성한 손수레에 꽃을 심어 완성했다. 완성하던 날! ‘우와!’하고 모두 탄성을 절로 나왔고 내가 했다는 놀라움과 뿌듯함을 느낀 소중한 시간이었다.





### 3. 비오는 날 탕탕탕!!! 난타가 생각나는 스트링아트



폭우가 쏟아지듯 장마 비가 세차게 내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다들 열심히 나무판자 위에 원하는 밑그림을 완성하고 못을 앙증맞은 망치로 '탕탕탕' 여기저기 '탕탕탕' 갑자기 음악공연이 시작되는 듯했다. '탕탕탕' 장단에 맞추듯 빗소리도 함께 어우러져 신명 나는 리듬에 빠져들어 다들 정말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다 순간 누군가의 웃음소리를 시작으로 주위를 돌아보면서 함께 웃었던 그 순간은 마치 난타공연이 끝난 후 연기자들끼리의 공감대를 나누는 듯한 동지애(?)가 느껴지기도 했다. 그리고 각자의 개성대로 스트링아트를 완성하고 서로의 작품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강사 및 참여자 후기>

##### 강사후기

발! 예술 네 번째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자연을 더욱 세밀하게 관찰할 뿐만 아니라 참여자와 함께 추억을 쌓고 무언가를 같이 만들어 나가면서 나 역시 길고 깊게 호흡하는 시간이었다.

참여자들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마음에 따듯함이 흐르는 시간이었기에 더없이 행복한 수업이었다. 그리고 예술 활동을 통해 각자의 삶의 이야기를 담으면서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어려워했지만 점점 자신감으로 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참여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 역시 큰 에너지를 얻어 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 참여자 후기 - 오월의 추억

처음 길을 따라 설레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고 장안읍 오리, 대룡마을 입구로 들어섰다. 그날따라 하늘에서는 빗줄기도 내려오며 처음 길을 묻는 나와 함께 대룡마을 한옥 교육장 앞으로 향한다. 아담하고 고즈넉한 기와지붕에서 고인 빗물이 푹, 푹, 떨어지며 나를 반겨주는 기

분이 묘했다.

매주 목요일, 분주하게 시작되는 아침을 정리하고 아이들을 챙겨 보내고 달려오는 길은 언제나 신나고 즐거웠다. 꽃과 식물을 들여다보고, 그 꽃으로 차를 만들고, 차를 음미하고 사담도 나누면서 예술발을 일구는 작업 중에도 일주일 동안 있었던 자신들의 이야기를 피우는 시간이었다. 봄에는 모종을 심고 잡초를 골라내고, 여름이 짙어지자 줄기와 잎이 자랐다. 한창 열매를 맺는 텃밭에서의 수확은 강렬한 햇빛도 우리를 지치게 할 수는 없었던 것 같다. 돌아오는 그날의 저녁상은 언제나 풍성한 야채로 가득했고, 그것을 먹을 수 있는 향긋함은 늘 오래오래 기억될 것 같다.



아내로, 엄마로 살아가는 하루하루 속에서 온전히 나, 나의 이름으로 존재하는 '바투아트'에서의 수업은 나를 그 옛날 젊은 시절로 회귀하는 기분을 느끼게 한다.

매주 식물을 만지고, 꽃잎을 만지고 마른 열매를 만지며 그것으로 다시 재창조하는 수업들이 마냥 신기하고 재미나고 힐링 되는 시간이었다.

'호모데우스'를 언제나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있으면 아이들에게는 책을 읽는 엄마가 된다. 향긋한 커피와 함께 신이 된 인간종의 이야기를 읽고서 함께 모인 여러 엄마들과 나누는 이야기는 머리를 번쩍번쩍 빛나게 한다. 다른 이의 관점과 해석을 들으며 나는 어떤 엄마로, 어떤 아내로 그리고 그 어떤 '나'로 존재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되고 조금 더 긍정의 희망으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지혜를 얻어 간다.

'발! 예술이 피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나를 이렇게 이끌고, 나의 삶에 향기를 뿌려주고, 나의 마음에 온기를 넣어주니 어찌 그만할 수 있을까? 하면서 웃음 지어본다.

오월의 따뜻함 같았던 대룡마을에서의 추억을 오래오래 간직하며 여러 다른 분들도 나와 같은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바투아트'수업이 계속되어 지길 두 손 모아 희망하게 된다. 오늘도, 내년에도, 10년 뒤에도 기억되는 추억이 오래되길...

## 꽃촌, 시(詩)가 꽃피는 마을

상상편집소 피플



- **단체기관명** : 상상편집소 피플

---

- **프로그램명** : 꽃촌, 시(詩)가 꽃피는 마을

---

- **향유기관** : 고촌휴먼시아아파트 새마을문고

---

- **교육분야** : 문학

---

- **교육대상** : 고촌휴먼시아아파트 새마을문고 자원봉사자 및 지역주민

---

- **단체소개** : 상상편집소 피플은 보편적 문화 향유를 위한 창조적 문화콘텐츠를 생산하고, 동시대와 호흡할 수 있는 미디어 나눔을 실천하고자 설립된 단체이다. 생활밀착형 문화프로젝트 기획, 문화예술교육 및 멘토링 활동 등 문화예술이 일상에 스며드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

- **프로그램 소개** : 내 집 아래 도서관에서 문학을 통해 마을의 일상과 주민들의 삶을 돌아보고, 마을시집을 제작해 지역과 나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애향심 및 삶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며, 또한 작은 도서관 운영의 내실화하여 지역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아파트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한다.

## 1. 첫 만남

비가 내리는 화요일, 첫 수업을 시작하였다. 첫 시간에 모인 열네 명의 참여자들은 대부분 50-60대 중년 여성으로, 25회 동안 진행되는 수업에 기대감과 함께 부담감도 갖고 있었다. 글을 쓴다는 행위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기도 하고, 장기간 진행되는 수업에 참여한다는 부담에 고민이 되기도 한 모습들이었다.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참여자들이 친해져 함께 어울리는 시간으로 변화하면서 부담 없이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 첫 시간은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골라 사진으로 나를 설명하고 자신만의 필명을 만들어보았다. 글쓰기란 매개를 통해 바라본 그들은 아줌마도, 엄마도 아닌, 누구랄 것 없이 그들만의 개성을 지닌 매력적인 ‘사람’들이었다.



## 2. 우리들 작은 낭독회

지금까지 이야기 나누고 짧게 적었던 글들을 다시 천천히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매주 시어로 글을 쓰고 필사해 온 글을 낭독하고 글을 적으며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았는데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와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나왔다. 지



금까지 썼던 글들 중 하나를 고르고 긴 글로 다듬어 낭독회를 진행해 보았는데 시로 글을 다듬은 분들이 많았다.

각자가 집에서 가져온 간식을 함께 먹으며 글을 낭독한 뒤 소감을 나누었다. 이렇게 모여 수다 떠는 시간이 즐겁다는 이야기와 잘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살면서 이렇게 글을 써 본 적이 없어서 낯설지만 재미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특히 얼마 전 이사 온 에메랄드님은 친한 이웃이 없어 외로웠는데, 동네 친구가 생긴 것 같아 즐겁다며 함빡 웃음 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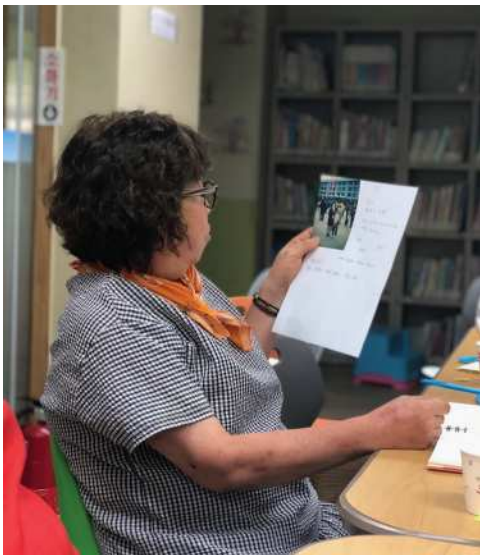
### 3. 빛나는 일상의 조각

꽃촌 둘레길을 걸으며 사진으로 주변을 담아보았다. 둘레길을 걷기 전 시어를 뽑아 산책을 하며 시어와 어울리는 사진 찍어오기를 미션으로 정하였다. “반짝반짝 은 부스러기”, “톡 쏘는”, “아작 깨물면” 같은 시어를 받은 참여자들은 당황하기도 하시고 어떤 걸 찍을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밖으로 나가 사진을 찍을 때는 서로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담아내었다. 서로 이야기 나누는 모습, 잠깐 벤치에 앉아 쉬는 모습, 걸어가는 뒷모습 등을 찍고 보여주며 까르르 웃기도 하였다. 비 때문에 촉촉해진 땅에 두꺼비, 버섯, 개미들을 보며 예전의 추억을 다시 떠올리기도 지금 함께 지내는 고촌에 대한 애정을 다시 되새기기도 하는 시간이 되었다.

사진을 찍고 돌아와 뽑은 시어들로 시도 지어 함께 나누었다. “톡 쏘는” 을 뽑은 은빛바다님이 맑은 하늘을 보면 톡 쏘는 음료를 먹은 듯 마음이 시원해진다는 시를 적어 많은 분들이 함께 공감하기도 했다.

**<강사 및 참여자 후기>**

집순이입니다. 어릴 땐 일기장에 글 끼적임을 좋아했지만 언젠가 부터인지 손에서 펜을 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손엔 스마트 폰을, 눈은 언제나 TV에 꽂고 사는 집순이가 되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시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참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 문 밖을 나서야 한다는 게 그저 귀찮기만 해서. 반 강제로 참여하게 된 첫 수업은 제가 생각하는 뜻 모를 어려운 ‘시’를 읊기만 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은빛바다’라는 예쁜 필명을 짓고 시어로 짧게나마 글을 적으며 제 삶을 뒤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머릿속에서 삶이 ‘시’ 안으로 옮겨간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이 아니라도 일주일 동안 작은 시상이 떠오르면 종이를 꺼내 문장을 만들고, 짧은 메모를 했습니다. 그렇게 펜을 들어 일기도 다시 쓰게 되면서 이따금 글을 끼적적이던 어린 날의 나를 다시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수업에 참여하며 시어로, 음악으로 얘기를 나누는 동안 내 삶과 타인의 삶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대화를 나누며, 나와 다른 이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가 행복하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꽃촌’ 어느 날 인연이 닿았다. 같은 부산이지만 매우 낯선 곳이라 끝까지 망설이다가 결국 이사를 한 지 삼년이 흘렀다. 간단한 장도 이전에 살던 동네에까지 가서 볼 만큼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이곳에 마음을 붙이지 못했다. 동네도 사람도 다 낯선 내게 누군가 시 수업이라는 것이 있다기에 멋진 시를 읽어주기도 하고 해석도 해 줄거나 상상하며 4월의 화요일, 도서관에 첫 발을 디뎠다. 하지만 오고 보니... 헉? 선생님이 주제를 주며 우들(수강생)더러 직접 글을 적으라 한다. 다소 당황스러웠으나 한 번 두 번 쓴 글과 시간이 쌓여가는 동안 글 솜씨가 딱히 느는 것은 아닐 지라도 함께 글을 나눈 우리 꽃촌 마을의 사람들과 어느덧 친분이 생기고 나름 친구도 생겼다. 무엇보다 수업시간 중에 서로의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내겐 정신과 치료나 심리 상담을 받는 정도의 위로가 되었다. 지금 돌아보니, 우울증을 앓던 내게 치료로 써도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 불규칙한 생활 속에서도 부득이한 일로 딱 한 번 빠진, 전설적인 출석률을 갖고 있을 만큼 난 이 시간이 좋다.

## 일상은 예술이다

### 아트커뮤니티센터 라온



- **단체기관명** : 아트커뮤니티센터 라온
- **프로그램명** : 문화예술로 나들이
- **항유기관** : 아트커뮤니티센터 라온
- **교육분야** : 통합문화예술교육 (미술, 공예, 디자인, 미디어, 인문학)
- **교육대상** : 연제구 주민(성인) 20명
- **단체소개** :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활동하는 문화예술 동아리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시작한 문화예술교육 사업으로 문화예술의 일상화를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돕는 역할까지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하며 시작한 단체이다.
- **프로그램 소개** : 지역특성을 고려한 생활 밀착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생활 속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마을공동체(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 1. 라온에서 우리동네 옆집 그녀를 만났다!

“하하하~ 여기서 보네요\*^^\*”

“직장 다니시는 것 같더니...”

“출근도장 찍고요 살짝 몇 시간 외근 다녀온다고 허락받고 왔어요~ 라온은 제가 직장 다니기 전부터 다니던 곳이라...”

“아이구 나도 알았으면 진작 왔을 텐데... 왜 몰랐을까요~ 우리 옆집 사는데 자주 봐요\*^^\* 하하하”

우리옆집 친절한 아주머니와 직장 맘 그녀는 2년째 옆집에 살고 있었는데 별로 친하지 않았다.



## 2. 8회차가 끝나는 그날... 주인장 허락도 없이 삼겹살 파티!

“오늘 작품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예술은 천부적인 소질이 있어야 하는 줄 알았는데 나도 멋진 작품을 맹글었어요~”

“하하하 맹글었다는 말이...”

“사투리 몰라요? 잘 만들었다구요~”

“오늘 작품이 잘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들어 보이소?”

“저요~”

“나도 잘 나온 거 같은디...\*^^\*”

“작품도 잘 나왔는데 수업 끝나고 삼겹살 한판 구워 먹어요~”

“고기는 제가 살께요~”

“채소는 제가 집에 가서 언능 들고 올께요~”

“밥은 우리 집에 많아요. 밥솥 채 들고 올께요~”

오늘의 점심식사는 아무도 반대할 수 없었다.

한사람도 빠짐없이 삼겹살...\*^^\*

문화예술교육은 한술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내 이웃과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준 멋진 녀석이다.

“한술밥을 먹으면 식구나 진배없음요~!! 하하하\*^^\*”



### 3.이웃과 함께하는 나만의 예술~ 일상이 예술~

“화요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을 잡지 않아요~

라온 와야 하니까...\*^^\*”



## <강사 및 참여자 후기>

### 강사후기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해 왔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만들었던 지난해 그 어떤 사업보다도, 2018년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은 라온에서 아주 특별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준 사업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구조조정이 있었고, 우여곡절 끝에 거점 공간을 새롭게 단장하는 일들과 구성원들과 공공성을 지닌 멋진 라온으로 다시 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 올립니다.



### 참여자 후기

2018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은 내 이웃을 만나고,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를 이해하고, 예술가들만 할 수 있다는 그 어려운 예술을 평범한 나도 할 수 있다는 예술로 생각을 바꿀 수 있었던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박미향-

평범한 일상이 지루했고, 아이들 키우느라 스스로 나를 위해서 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서 항상 우울했는데 라온에 와서 나와 비슷한 이웃을 만나고, 재미있는 작품 활동을 하면서 내 일상도 예술작품처럼 생각만 바꾸면 바뀔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늘 보던 창문가에 선인장도 내 손으로 끄적끄적 드로잉하면 멋진 작품이 되는 그런 일상을 선물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민영-



8월에 이사하신다는 말씀 듣고 멀어도 라온은 꼭 찾아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집이랑 더 가까워져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라온은 이웃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시고, 나에게 일상에서 예술을 느낄 수 있도록 멋진 경험을 하게 해준 멋진 곳입니다.

라온이 쭉~~욱~~~ 우리 동네에 있었으면 합니다. \*\*\* -박명숙-

## 문화나눔으로 희희낙락

### 예술연구소 두드림



- **단체기관명** : 예술연구소 두드림

---

- **프로그램명** : 문화나눔으로 희희낙락

---

- **향유기관** : 동구종합사회복지관

---

- **교육분야** : 무용을 기반으로 한 통합프로그램

---

- **교육대상** : 소외계층을 포함한 동구 안창마을 60대 어르신

---

- **단체소개** : 예술연구소 두드림은 무용을 기반으로 다양한 예술 장르 협업을 통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문화예술을 경험, 소통, 공감하는 참여자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다.

---

- **프로그램 소개** : 지리적, 역사적 의미가 있는 안창마을의 이야기와 각양각색 자신의 이야기를 춤으로 표현, 소통하고 함께 나누는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명처럼 '문화나눔으로 희희낙락'은 문화나눔으로 기쁜 일이 언제나 넘치고 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마을 축제에 참여하여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므로 자긍심이 배가 될 것이다.

## 1. 꽃피는 4월 우리는 만났습니다.



한춤(한국무용)이 추고 싶어 왔다고 하시며 고개를 살포시 내밀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 2. 우리의 첫 번째 이야기 - 나를 찾아



안창 오색빛깔공방에서 6.25전쟁 때 모여든 피난민들에 의해 형성된 마을의 이야기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여정이 수건에 스며들었습니다. 손수 염색한 수건으로 나의 감정과 이야기를 표현하므로,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갑니다. 언제 서먹했냐는 듯 어르신들은 서로 “내가 제일 못하네, 누가 참 잘하네, 아이고 큰일이네” 걱정의 말씀을 하시지만 그 또한 보기에 흐뭇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힘이 드실까봐 쉬엄쉬엄 하셔도 괜찮다는 말에 “여기까지 왔는데 계속 같이 하자”하시는 모습을 보며 그 마음은 누구보다 “청춘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 3. 우리의 두 번째 이야기 - 마을과 함께



생전 처음 잡아본 크레파스를 보고 “이런 걸 왜 하느냐? 크레파스 등 만져 본적이 없다. 나는 이런 건 못 한다” 등 반응으로 첫 수업 시작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함께한 시간이 모여 같은 추억을 가진 것처럼 이제는 자연스럽게 오늘은 어떤 새로운 것을 하는지 호기심 어린 질문으로 바뀌어갑니다. 마을입구부터 마을 곳곳이 안창마을의 트랜드인 호랭이를 직접 손으로 탈

을 만들어 쓰고 한삼자락 날리며 흥이나 “얼썬~ 좋다”를 외치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 4. 사람과 사람이 만나 나눔으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문화나눔으로 희희낙락’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설렘과 작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르신들은 여전히 “끼리끼리” 어울리는 것을 선호한 듯 작은 무리들끼리 인사하고 이야기하면서 수업에 참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도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처럼 서로의 감정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스스럼없이 인사말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고 누가 먼저가 아니라 스스로 옥수수, 감자, 포도 등 집에 있는 간식을 함께 나눠먹는 ‘끈끈한 정’과 ‘의리’가 생겼습니다. ‘어르신들의 의리’는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으로 마을의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진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을과 연계하여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지고자 하였습니다. ‘안창호랭이축제’ 참여를 통해 마을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을 발견할 때 기쁨이 배가 되고, 함께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시간을 아쉬워하며 벌써 내년을 먼저 이야기하는 어머니들께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언제나 지금처럼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강사 및 참여자 후기>

#### 주강사(이희정) 후기

어색함도 잠시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즐거운 상황에 미소를 나누며, 힘드셔도 강사들 애쓰는데 미안하다며 쉬시지도 않고 열심히 참여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나와 마을의 이야기를 가지고 춤으로 하나씩 완성된 영상에 비친 모습들을 보시며, “잘하네 서울가도 되겠다”하시며 즐거워하시던 모습들이 행복했습니다. 우리의 타이틀처럼 안창마을의 어머니들과 희희낙락하다보니 어느새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목표인 주민과 관계성을 갖고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 할 수 있는 문화기반을 조성하여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지속성을 가지고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 참여자(손순애) 후기

잘해서가 아니라 단지 춤이 좋아 참여하였다. 생각처럼 잘 따라하지 못해 항상 동작이 늦었지만 그 또한 보기 좋다는 선생님의 말에 즐겁고 행복했다.



## 무지개가 걸린 동네

움직임연구소 마르



- **단체기관명** : 움직임연구소 마르
- **프로그램명** : 노인을 위한 해피댄스<무지개빛동네>
- **향유기관** : 해운대 인문학도서관
- **교육분야** : (무용)전통연희
- **교육대상** : 해운대구 반여지역 75세이상 노인들
- **단체소개** : 움직임연구소 마르는 움직임을 이용하여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창의적 놀이형태로 만들어내고 이를 각 대상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단체이다.
- **프로그램 소개** : 전통연희극의 양식을 통해 다양한 체험을 하게하고 본인들의 삶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으로 엮고, 극과 접목하여 스스로 창의적 주체가 되어 본인의 이야기가 춤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경험하게 한다.



## 1.해피댄스를 시작하던 어느 봄날

처음 시작한 지역특성화지원 사업인지라 첫날 수업은 매우 흥분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수업장소로 향하였다. 수업 시간이 가까울수록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시작하셨고 자기소개와 함께 이 수업에 대한 흥미와 궁금증을 드러내셨다. 수업의 취지는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지는 수업인지 상세히 물어보셨다.



그렇게 시작된 수업은 중반을 넘어서면서 부터는 처음의 서먹서먹하고 멧쩍어 하던 모습들은 점점 사라지고 흥에 넘쳐, 기분에 겨워 움직임을 만들어 내기 시작하였다. 물론, 일주일에 한번 이루어지는 수업이다 보니 순서라고는 조금 있는 것도 잊어버리기 일쑤였지만 수업이 주는 재미에 그런 건 문제될게 아니었다. 우리 수업 받으시는 분 중 거동이 불편한 분이 있으신데 그분은 가장 먼 곳에서 오시는데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팡이를 짚고 오셔서 의자에 앉아서 수업을 받고 가신다.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에 감동받기도 하고 또 본받기도 한다.



## 2. 공연이 가까울수록

어머님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우리가 잘하겠나?’. 그렇게 자신 없어하던 분들이 공연이 다가오자, 그리고 막상 무대에 오를 걸 생각하며 요즘은 ‘출세했네, 이 나이에 무대에 다 서보고’ ‘나는 잘 못해서 공연 준비가 시작되면 슬그머니 빠지려고 했더니 그냥 해야겠네.’라며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이야기 하시지만 그런 얘기들을 늘어놓으면서 슬그머니 미소를 머금으신다. 걱정도 되고 자신도 없지만 하는 게 좋긴 좋으신가 보다.



### 3. 어느새 11월

처음 시작하고, 더운 여름을 견디고 어느덧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오니 참으로 섭섭하다. 어르신들도 이제 끝나고 요즘은 자주 물어보신다, 담에도 신청하고 싶다 시며, 수업이 끝나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본다. 결국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우리지만 이 수업의 주인은 참여하는 어르신들이며 이분들이 없이는 이런 결과물도 없으며 이런 멋진 경험도 없다는 것을.

#### <강사 및 참여자 후기>

##### 강사 후기

처음 시작하는 수업이었지만 만족도는 너무도 컸다. 매 차시마다 수업을 받는 대상자가 주는 감동이, 결과물이 앞으로의 수업을 더 잘해야겠다는 의지를 불러 일으켰고 열심히 임해주신 대상자들에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 당리동 제석골 할머니들의 행복한 수다 '장수탕 선녀님'

커뮤니티 아트센터 '숲'



- **단체기관명** : 커뮤니티 아트센터 '숲'
- **프로그램명** : 당리동 제석골 할머니들의 행복한 수다 '장수탕 선녀님'
- **향유기관** : 당리작은도서관
- **교육분야** : 인문학, 미술, 놀이 (통합)
- **교육대상** : 당리동 제석골 일대 거주 할머니 및 주부
- **단체소개** : 1. 본 단체는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교육과 기획 또는 통합 장르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것을 확산, 시행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개발한 콘텐츠로 각 세대 간의 소통의 장을 여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프로그램 소개** : 이 지역 어르신들의 삶을 바탕으로 한 '기억의 소환'으로 젊은 세대에게 잊혀져가는 지역의 이야기들을 전수하는 작업을 한다. 이 작업의 매개는 그림책이 될 것이며 개인의 삶을 스토리텔링화한 그림책 외 다양한 예술작품으로 그 결과물을 도출 할 것이다.

## 1. 우린 그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항상 도서관 앞의 양지바른 벤치에는 할머니들이 앉아계시고 잠시 목이 마르시면 도서관에 들어가셔서 목을 축일 법도 하신데 물 한 잔도 제대로 드시기 어려우신지 늘 들어가는 이에게 ‘미안한데 물 한 잔만 떠주소!’ 하고 말을 건네신다. ‘할머니! 편안하게 들어가셔서 물드시고 쉬셔도 돼요!’ 라는 말에 손사래를 치신다. 도서관은 젊은이들의 전유물이었고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들어가는 것 자체가 방해하고 금기 장소처럼 여기고 계셨던 것이다. 그래서 젊은이들의 도서관 취업 준비생들의 열공 장소인 도서관을 할머니들도 당당하게 들어가실 수 있도록 유인하고자 이 프로그램은 만들어졌다. 그러나 할머니들은 자신들이 주인공이 될 이 프로그램의 소개에도 ‘내가 손주도 봐야 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줄 몰라!’, ‘나이가 많고 글도 잘 몰라!’하시며 웃음으로 피하셨다. 그냥 놀 하시던 대로 양지바른 벤치에 앉아 길 가는 사람들 구경하시며 시간을 보내시는 일들이 마음 편하신 것이다. 프로그램이 시작되어도 할머니들은 소식이 없고 겨우 4-5분. 그리고 강사들은 홍보지를 만들어 길을 나섰다. 가가호호, 경로당, 노인정을 방문하기도 하고 지나가는 어르신들을 붙잡고 애원하기도 하며 진땀을 흘렸다. 그리고 두세 분 정도가 더 나오시고 이분들이라도 재미나게 한번 꾸려 보자하고 시작이 되었다. 어르신들은 그냥 수업을 들으러 오신 학생이 아니셨고 몇 주가 지나며 자식처럼 이 프로그램을 걱정하시고 이웃 어르신들에게 소개해주시고 우리의 홍보대사가 되



어주셨다. 그리고 매주 새로운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고 우린 그렇게 만나게 되고 인연의 시작이 되었다.

## 2. 그림책은 애들이 보는 거 아이가?



어르신들과 『장수탕 선녀님』이라는 그림책을 펼쳐 한 장 한 장 읽어가며 그 시절의 목욕탕 이야기가 시작 되었다. 할머니들은 물이 귀한 시절이라 집에서 목욕도 목욕탕도 자주 갈 수 없었던 명절이라야 겨우 다녀올 수 있었던 목욕탕이야기, 사람이 많아 북새통을 이룬 명절 앞 목욕탕은 발가벗고 앉을 자리가 없어 옆에 목욕 다라이를 들고 자리 나기만을 기다리고 서 있는 사람,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눈이 레이더를 켜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람, 오래간만에 미는 떼들이 탕 속에 둥둥 떠다니면 바가지로 떼를 걷어 내어가며 하던 그 시절의 이야기들을 준비하게 내어놓으셨다. 그 시절은 그래도 목욕 한 번 갔다 오면 뽀얗게 귀티 나보이던 그 날이 참 행복했었다고...



‘그림책을 애들만 보는 건 줄 알았는데 선생님하고 그림책 보니 재미난 이야기꺼리들이 생각 많이 나네요!’하시며 즐거워 하셨다. 프로그램 중 미술체험을 병행하며 진행한다는 말에 어르신들은 ‘나는 그림도 못 그리고 할 줄 모르는데 우찌 할꼬!’ ‘미술을 한다 하니 가슴이 쿵쿵쿵 뛰는데 선생님!’하며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시작한 수업이었다. 그날은 어르신들도 울고 앞에 서 있는 선생이라는 나도 눈물짓던 날이었다. 늘 알록달록 화려한 꽃무늬에 핑크색 붉은 색들의 화려한 옷을 입고 항상 밝은 성격의 어르신 우리의 분위기 메이커이신 이름도 예쁘신 혜영어머니!! 『다섯손가락』이라는 그림책을 함께 보시고 어르신들의 삶을 기억하는 손을 석고로 캐스팅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 중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중 어머니는 계속 눈물을 흘리셨다. 진행하던 나도 말을 잊지 못하고 울컥하고 말았다. ‘내 손한테 너무 미안하오. 70평생 내 손한테 너무 미안하고 남의 집 살림 살아주고 한시도 호강 한번 못해주고 물마를 날 없이 고생만 시킨 것 같아 너무 미안하오.’ 하시며 빨간 눈시울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셨다. 그리고 완성된 손을 소중하게 담아 늘 가방에 넣어 다니시며 주변에 자랑하고 또 이 수업에 꼭 오라고 이야기하고 다니신다 하셨다.

### 3. ‘그래 저 아저씨가 너그 아버지 아이가!!’

프로그램 내 현장학습으로 연극을 다 함께 보러 가기로 했다. 어르신들은 70평생 처음으로 연극이라는 것을 처음 보러 가신다며 들떠 있었다. ‘자식들도 바빠 이런데 못 데리고 가!’ ‘내 혼자서 우짜 이런데 가 보겠노!’하시며 소풍을 기다리는 아이들처럼 설레 하셨다. 다함께 1호선에서 2호선 지하철을 갈아타며 혹시나 낯선 동네에서 길을 잃을까 열심히 줄을 놓치지 않고 따라 오신다. 소극장이 있던 화려한 대학 앞을 지나며

그 손자뻘 되는 아이들 틈을 지나며 어르신들은 이 시간 이 거리를 지나는 것만으로도 즐거우신가 보다.



형편이 어려워 가족을 위해 가난을 탈출하기 위해 월남전에 참전한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죽은 줄만 알고 10년 넘게 홀어머니가 아이들과 달동네에서 가난하게 아버지를 그리며 살아가는 이야기다. 결국 살아 돌아온 아버지와 재회를 하게 되는 이야기 속에 다양한 어르신들이 겪어온 삶을 코믹하게 또는 가슴 아프게 그려낸 『달동네』라는 연극이었다. 함께 웃다가 울다가 심취해 있을 무렵 아버지와 재회 장면에서 모두가 조용히 몰입되어 있던 찰라 '그래 저 아저씨가 너그 아버지 아이가!' 하시며 끼이 끼이 우시며 큰 소리로 대본에도 없던 대사가 관객에서 흘러나왔다. 눈물을 흘리며 연기하던 배우들은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고 감정이입이 되었던 객석에서 곳곳에 웃음소리가 곳곳에서 번져갔다. 그 이후 예상치도 못했던 지나가던 행인1의 배역을 맡은 객석 배우는 연극이 끝날 때까지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말았다.



## <강사 및 참여자 후기>

### 주강사 후기 (안소영)



그림책을 공부하고 그림책의 그림을 유심히 보게 되니 미술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었다. 그림책의 다양한 활용을 위해 여러 분야의 공부를 하던 중 탁경아 선생님을 알게 되어 접하게 된 부산문화재단과 지역특성화사업 당리작은도서관 부근의 어르신들을 보면서 저분들과 함께 도서관에서 그림책을 보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누고 당리동 주변의 이야기도 듣고 싶다고 생각해 왔었는데 지역특성화사업이란 걸 알게 되고 직접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처음에 참여하실 분들을 모집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다니며 말씀드리고 설명해도 참여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회의도 들었는데 한 분 두 분 오시고 그분들이 소개하셔서 또 오시고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강사가 아니라 참여자의 딸이 되고 동생이 되고 언니가 되는 느낌이었다.

### 참여자 후기 (안소영)



저는 지인의 소개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프로그램의 대상이 ‘할머니’라는 소식을 듣고, 집에 계신 시부모님이 떠올라 바쁘신 어머님 대신 오후에 일을 나가시는 아버님께 이야기를 꺼내보았더니 관심을 가져 주셔서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나의 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손 모양의 석고를 본 뜨는 과정은 아버님도 저도 처음 해보는 경험이라 신기하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완성된 손 모양의 석고를 거실 한 편에 조심스레 진열해두셨습니다. 손이 거친 세월은 젊은 시절 군 생활을 하다 다친 이야기, 양곡점을 할 적 쌀 한 가마니를 거뜨히 든 이야기... 대견스럽고 고생스러워 미안해진다며 물끄러미 튀어나온 손등의 주름을 만져 보십니다. 오래전 잊고 살던 시간을 추억이 되도록 만들어 준 뽀얀 석고를 볼 때마다 저마저 속연해집니다. 가족이지만 다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시간을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나누고 간직할 수 있어서 너무 뜻깊고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다!

클래식 라디오



- **단체기관명** : 클래식라디오
- **프로그램명** : 회화나무 빨래터 사람들
- **향유기관** : 사하구청 평생학습과
- **교육분야** : 음악 (미술·연극 연계)
- **교육대상** : 사하구 지역주민
- **단체소개** : 클래식 라디오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연주를 통해 재 해석하여 연주하는 단체로서, 지역의 문화발전에 발맞추어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거운 문화예술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한 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이다.
- **프로그램 소개** : 지역의 특색 있는 회화나무 빨래터 공간을 중심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연극·미술 활동을 연계한 음악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60~80대의 참여자들이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잊었던 자기 자신을 다시 한 번 찾아보고 어렸을 때의 추억을 회상하며,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소통하며 긍정적 관계형성을 이루어 가는 프로그램이다.

## 1. 이곳은 사하구 어르신 유치원

수업 참여를 위해 아침부터 이곳저곳에서 분주하게 찾아오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에 생기가 가득하다. 수업 교실에는 어느새 웃음꽃이 활짝 피어 담소를 나누는 모습에서 아이와 같은 천진난만한 모습을 마주하게 될 때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우리 여기 사하구 어르신 유치원 왔다 아이가’

그렇게 수업에 대한 기대감과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우리를 맞을 때면 ‘네에~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신나게 작품 만들어보겠습니다.’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미소가 끊이질 않지만 작품을 대할 때면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대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이곳이 바로 어르신들의 유치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2. 초상화!!!

미술 수업을 진행 하면서 참여자분들과 초상화 그리기에 도전을 해 보았다. 미리 참여자 분들의 사진을 출력해서 자신의 사진을 보면서 초상화 그리기를 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초상화 그리는 방법을 설명하고 그리기를 시작하는데 한 참여자분이 나 살아오면서 한번도 내 얼굴을 그린 적이 없어 그리고 사진을 보면서 내 모습을 그리는 게

힘들다고 또 다른 참여자는 이거 잘 그려서 영정사진 쓰면 되겠다고, 이거 잘 그려 들고 가서 손자들에게 할머니도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린다고 자랑을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초상화 그리기를 시작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자기 자신을 그려본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자신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해본 적이 있나? 초상화 그리기 도전!!!

### 3. 2018년 10월 30일 발표회

선생님 웃은 어떻게 입을까요? 관중들은 많이 오나요? 우리가 잘 할 수 있을까요? 물음이 끝없이 이어지는 시간이었다. 드디어 우리가 준비한 회화나무 빨래터에서의 작품 및 공연을 가지는 시간이 다가왔다. 리코더 손가락이 잘 안돌아가고 핸드벨은 자기 음이 아닌 부분에서 소리가 들리고 난타는 시끄럽기 시작한다. 미술과 연극을 연계한 음악수업을 해나가면서 참여자분들이 한결 밝아지시고 적극적으로 변화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꼭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 되나? 무대에서 안 틀려야만 하나? 란 물음에 대해 자문해보기 시작한다. 참여자들과 함께한 시간들을 공유하고 지역민들과 나누면서 배움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문화예술이 먼 이야기가 아닌 우리 옆의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나누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한다.



## <강사 및 참여자 후기>

### 주강사 후기 (정희보)



어느덧 회화나무 빨래터 수업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니 첫 시작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회화나무 빨래터 수업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려 회화나무 빨래터에 직접 나가 전단을 돌리고 지역 주민을 직접 만나고 첫 수업을 시작했을 때, 생각보다 작은 인원으로 고민하고 더욱 열심을 다해 지역에 곳곳을 찾아가서 홍보를 통해 예상했던 참여자들이 오셔서 수업을 이어나갔던 게 어제 일 같은데 이제 마무리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니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 거 같습니다.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이 60~70세라 저희가 준비했던 수업을 잘 따라오실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희의 걱정과 달리 너무 잘 따라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여자분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예술적 감각들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이 사업을 홍보할 때 많은 분들이 “나 그것 못해요”, “이 나이에 배울 수 있을까?”, “예술 그런 거 우리 잘 몰라요”란 말을 참 많이 들었는데 직접 참여자들과 수업을 해보니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경험해보지 못해서 못하는 거구나란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지역특성화 사업에 참여하여 지역 주민들이 문화예술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 참여자 후기 (황춘자)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회화나무 빨래터” 음악, 미술, 연극 수업에 참여하자는 권유를 받고 초기부터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5월에 시작하여 벌써 11월에는 수업 종료라고 하니 너무 섭섭한 마음들을 달랠 길 없습니다.

「미술」시간 처음으로 자화상을 그려 놓고 서로 마주보고 웃던 일, 학창시절 이후 처음으로 색채감을 느껴 흐뭇했던 일, 지나간 모든 일들이 꿈만 같았습니다.

「연극」시간에 대본을 읽으며 '실제 연극 상황극'을 할 때 새로운 큰일을 해 냈다는 자부심.



「음악」수업은 어려운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리코더, 난타, 핸드벨 등 처음에는 손가락도 안 돌아갔는데 5개월 이상 수업을 하다 보니 음악이 완성됐고 학교에 다니는 손주들만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우리 할머니도 해 냈다고 손뼉을 치고 웃었습니다.

이제 연주할 날만 기다려집니다.

시. 청. 각. 교육을 골고루 시켜주셔서 치매 걸릴 일이 없다고 모두들 환호하며 이 수업이 10년을 함께 하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선생님들 그동안 모든 일에 무지한 저희들 지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 오.감.동.래 이야기 침선교실 오.감.동.래 치유극장

함께사는문화마을공동체



- **단체기관명** : 함께사는문화마을공동체

---

- **프로그램명** : ①오.감.동.래 이야기 침선교실  
②오.감.동.래 치유극장

---

- **향유기관** : 희망정류소

---

- **교육분야** : ①디자인, 의복 창작 ②심리치료

---

- **교육대상** : 생활한복 짓기에 관심 있는 누구나

---

- **단체소개** : 소외받는 이웃들을 중심으로 그들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계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단체이다.

---

- **프로그램 소개** : ①우리 전통 한복의 맛을 살린 생활 한복을 손바느질로 직접 짓는 침선을 통해 나만의 생활 한복을 만들고 이웃과 동래를 새롭게 만나보는 프로그램 ②영화치료를 통해 일상에서 지친 마을을 위로받고 건강한 삶을 이룰 수 있는 마음 성장 프로그램

## 1. 오.감.동.래 이야기 침선교실



### 개성 가득한 수강생들과 함께 지어보는 우리 옷

하나하나의 수강생들이 기억에 남는다. 의욕이 충만하시고 하나라도 더 배워서 집에서 숙제로 해 오시려는 분, 저고리 하나 완성하시고 주문을 여러 벌 받았다고 기뻐하시는 분, 정해놓은 교안에 따르지 않지만 본인의 상상대로 만들어 입으시는 분, 나는 느려요. 느린 거 같아요. 라고 말하지만 정작 침선의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 등등 모두 아주 다양한 색깔을 뽐내셨다.

### 이야기꽃이 피는 침선

침선이라는 것은 바늘과 실을 뜻하는데 천천히 마음을 다해 한 땀 한 땀 해 내는 것이어서 내가 보기에는 모든 분들이 제대로 침선을 하고 있는 거 같다.

지겨울 법도 한 시간에 생활의 지혜와 정보가 오고 가고, 어떻게 하면 이쁘게 나올까 고민을 하는 모습도 이뻐 보였다.





땀이라는 것에는 그 사람의 정성이 묻어나는 것 같아 자꾸 만지게 되고, 보게 되고, 지어 입게 된다.

마음들이 오고 가는 현장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있다.

### **30대에서 60대까지 모두가 한마음!**

아이가 아직 어려 업고서 오는 30대 참여자부터 손주를 데리고 오는 60대 참여자까지 세대를 아우르며 생활한복 짓기에 한마음이 되었다. 거의 6개월가량의 시간 속에 옷을, 내 몸에 꼭 맞게 제도하여, 그것도 한복을 3벌이나 만들었다. 짧은 기간 안에 손바느질로 한복을 만든다는 건 상당한 인내력과 열정을 요구하는 일이다. 나이를 떠나서 서로 북돋으며, 도와가며, 가르쳐 주어가며, 완성의 기쁨을 같이 누리가고 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손바느질을 하면서 시댁 이야기, 남편 이야기로 서로를 알아가며 입장을 이해해가는 세대공감 시간이 되기도 했다. 이것이 이야기 침선 교실의 매력이 아닐까 한다.

## <강사 및 참여자 후기>

### 강사 후기

손바느질을 처음 하시는 분, 한복 과정을 예전에 마치신 분, 손바느질은 해 본적 없으나 재봉틀을 사용한 적은 있으신 분... 등등 다양한 이력을 가진 수강생들을 어떻게 수업 진도를 맞추지 시작 전부터 걱정이 되었다. 게다가 3종류의 한복이라니... 과연 다 따라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었다.

그런데 시작과 동시에 그것이 기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침선 교실이라는 이름에 맞게 천천히 진도에 맞게 따라오시는 분도 계시고, 어려워하면서 진도보다 늦게 진행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 하신 분은 속도가 느린 분들을 도와주며 같이 이끌어주면서 저고리, 허리 치마, 철릭 원피스를 각자의 속도에 맞게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다. 수업을 하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개인들이 가지는 질문들이 각각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 덕에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직접 겪지 않아도 되고, 그런 경우에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강사로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에 고마움을 느낀다. 수강생부터 기획자, 부산문화재단까지 함께 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본다.

### 참여자 후기

바느질은 물론이려니와 옷도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생활한복을 손바느질로 짓는다는 소식을 듣고 얼른 신청하고 보니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겨우 저고리를 완성하고 한숨 돌리고 나면 허리 치마를 만들고, 또 한숨 돌리고 나니 철릭 원피스 차례가 돌아왔다. 다들 너무 이쁘게 잘들 만드시는데 초보인 나는 연거푸 실수를 해서 했던 제도를 수정하고, 마름질을 다시 하기도 하고, 했던 바느질을 다시 뜯어내기도 했다. 완성한 옷을 입고 식구들에게 선보이니 촌스럽다고 50년대 사람 같다고들 해서 또 실망하기도 하고, 다른 분들의 예쁜 한복의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기운 내기도 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손바느질을 하염없이 하고 있노라면 마음의 평정이 생기는 것도 좋았고, 함께 하면서 어머니 또래의 참여자분들과 고향 이야기며 살림 사는 이야기며 여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도 좋았다.

내가 지은 내 옷이 생기는 것도 또한 참 좋다. 이런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되면 좋겠다.

## II. 오.감.동.래 치유극장



### 힘을 내요!

모두가 응원했다.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을 꺼내 보라고 온 힘으로 모두가 응원을 했다. 하지만 평정의 입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꺼내 보면 생각보다 가벼울 수 있는 말일 수도 있는데 평정에게는 너무나 꺼내기 힘든 말이었던 거 같다. 그래서 그것을 견디는 시간이 다소 힘들어 보였다. 모두의 기다림 끝에 결국 평정은 용기를 냈다. '함께 하고 싶어요.'라고 말을 꺼냈다.

### 친절한 날라리님~

휘파람 소리가 멀리서부터 아련하게 들린다. 그러면 모두가 날라리가 왔다고 말을 한다.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면 어김없이 날라리님이 등장할 한다. 휘파람 소리는 날라리의 등장을 의미했다. 우리에게 익숙함으로 그렇게 전달되었다. 날라리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 주었다. 어느 날 복잡함과 단순함에 관한 날라리의 설명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잘 알아듣지 못하였다. 그래도 날라리는 쉬지 않고 설명을 한다.

##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연습

“자꾸 그러면 나는 집에 갈 거요!” 라고 웃자님이 말을 하였다. 지금 느껴지는 마음을 전달해 보라는 요구에 당황하여 이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는 생각보다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지냈다는 이야기 일수도 있다. 이러한 모습은 웃자님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매주 만나면서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연습이 꾸준히 이어졌고, 이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의 삶을 성장시키고 있었다. 웃자님이 감정 표현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즈음에 웃자는 말하였다. ‘많이 힘들었겠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였다.



## <강사 및 참여자 후기>

### 강사 후기

반복되는 일상과 관계에서 우리는 어느새 자기를 선명하게 떠올리지 못한 채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일탈을 통한 또 다른 공간에서 자

기를 만나려는 노력과 자신을 새롭게 경험하려고 한다. 치유극장은 자기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영화는 우리를 또 다른 세계로 이끌고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영화를 통해 만남을 통해서 희미해지고 있는 자신을 보다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이다. 치유극장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그동안 알고 있던 자신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함께 감정과 생각을 나누면서 자기를 경험하였다. 또 함께 하는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 자신을 진정시키고 자신의 삶을 돌보며 보다 안전한 공간을 함께 만들어 갔다. 희망정류소에서 함께 한 치유극장은 우리를 성숙이라는 곳으로 이끌고 있었다.



#### 참여자 후기

치유극장을 통해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 좋았고 대인관계에서 타인에게 비치는 내 모습이 어떤지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의미 있는 수업이었다. 영화를 통해 전해지는 메시지에 나의 감정을 머무르게 하는 것도 새로웠고 프로그램 하는 과정에서 불쑥불쑥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많이 체험하게 되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해 보고 감정에 머물러 보는 시간과 대화하는 시간이 의미 있었다. 대화중에서 그 사람의 삶이 녹아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고, 평소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주제에 감정을 머무르게 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았다. 중간 중간 합동으로 하는 작품이나 작업하는 시간이 좋았고, 다음에 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하고 싶다.

수업을 진행, 기획해 주신 선생님들과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기억에 남을 것 같고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 연극예술 창작을 활용한 환경 실천에 앞장서는 지역 노리터 (老利摠) 만들기

햇빛연극단



- **단체기관명** : 햇빛연극단
- **프로그램명** : 연극예술 창작을 활용한 환경 실천에 앞장서는 지역 노리터(老利摠) 만들기
- **향유기관** : 용호종합사회복지관
- **교육분야** : 연극
- **교육대상** : 65세 이상 지역 어르신
- **단체소개** : 햇빛연극단은 교육연극과 연극교육을 접목시켜, 문화예술교육과 공연을 함께 일구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이루어진 전문예술공연 단체이다. 예술전반의 전문가(무대, 조명, 무용 등)들과의 항시 협업을 통한 봉사를 우선으로 하며, 상호 적극 협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자체개발 프로그램교육운영과 창작 위주의 공연을 최우선으로 하며, 지역의 다양한 계층(장애아동, 지역 어르신, 기관담당자, 은퇴 후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정기모임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노인문제, 청소년문제, 성폭력, 아동학대문제 뿐 아니라 삶의 활력과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지역 내 소재(역사, 문화, 생활)의 다양한 레퍼토리를 발굴, 창작하여 새로운 연극 장르를 열어가는 교육극단이 될 것이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2017년, 2018년도 연이어서 지역소재의 설화를 뮤지컬로 창작 구성한 '이기여~ 의기여! 가 현재에도 성황리에 공연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더욱 더 지역연극 창작 활성화에 힘쓸 것이다.

- **프로그램 소개 :** ①우리 전통 한복의 맛을 살린 생활 한복을 손바느질로 직접 짓는 침선을 통해 나만의 생활 한복을 만들고 이웃과 동래를 새롭게 만나보는 프로그램 ②영화치료를 통해 일상에서 지친 마음을 위로받고 건강한 삶을 이룰 수 있는 마음 성장 프로그램



## 1. 매일 기다려지는 내 인생의 다방

수요일 오전이면 늘 마음이 바쁘다. 수업 시작하기 전 원두커피, 믹스커피, 한방차, 호박차를 비롯한 다양한 차 한 잔의 대접으로 시작하기에 나름 일찍 출근해서 준비를 한다. 하지만 수업과정이 진행될수록 어느새 어르신들의 출근시간은 점점 앞당겨져만 간다.

수업은 정확하게 오전 10시에 시작하지만 어르신들의 출근시간은 이미 30분 이상의 시간이 계속 앞당겨져 가고 있다. 그러기에 조금 더 일찍 출근해서 어르신 한 분이라도 대접하기 위해 마음이 바빠지는 것이다. 이제 수요일 오전의 일상이 되어서인지, 어르신들은 수업 시



작 전 이 시간이 어느 일류 호텔 커피 못지않은 맛과 서비스를 누리면서 수요일 뿐 아니라 매일 기다려지고 가고 싶은, 설레는 첫사랑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다방처럼 아련한 추억으로 다가오신다고 말씀하신다.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에서 그 다방이 언제나 연중무휴로 진행되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 2. 메타쉐콰이어 길에서 우울증을 치료하다.



올해 수업의 주제와 목표가 환경사랑 실천운동이라는 계획 아래 현장 체험의 일환으로 담양의 메타쉐콰이어 길을 방문하였다.

어르신들에겐 다소 이동하기에 멀고 긴 시간이며 또한 올해 여름 날씨는 그야말로 예측 불가능한 폭염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불편한 몸으로도 수업에 적극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몇 몇 분 계셨기에 걱정스런 맘으로 동행의 의사를 물었지만 꼭 참여를 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시기에 여간 미안한 마음을 금치 못하였다. 하지만 사전계획 공지 속에 진행된 현장 체험방문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무더위 속에서도 시원한 나무 사이를 가벼운 마음으로 길을 걸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토닥이며, 발을 맞추고, 또 먼저 걸어가신 분이 기다려주시고, 기다렸다 동행하시면서, 잠시 잠시 메타쉐콰이어와 대화를 나누시는

것이였다. 이 때 그 나무를 껴안으시는 어르신을 향해 모두가 가벼운 마음으로 어깨도 주물러 주시고, 등도 쓸어 내려주시는 순간 심한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한 어르신이 정말 감격에 겨워하시면서 마음의 병을 치유하시는 과정을 목격하였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는 마음 속에 그 어르신은 정말 지금까지 느끼지 못한 벅찬 감동을 얻으셨다고 하셨다. 하나 된 열정의 에너지가 정말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치료제를 발견하였던 것이다.

지금도 그 때 서로의 마음을 잊지 못하시며, 연극 수업에 참여를 하는 모습을 보면 강사로서 참으로 대단한 현장의 중심에 서 있음을 느낀다.



### 3. 일상의 한 마디 한 마디가 무대 언어가 되어 다시 태어나다.

연극을 통한 예술 체험활동의 실천은 어르신들에게 분명 벅찬 도전이며,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상을 통하여 그 두려움이 곧 친숙함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그리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다. 지역 환경운동을 위한 실천운동으로 골목청소를 깨끗이 하고, 이를 즉흥극을 통하여 무대화하였을 때 어느새 자신이 배우가 되어있는 줄 몰랐었다고 하신다.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불법





주차, 무단 투기 그리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면서 자신이 겪은 일들이 무대언어화를 통하여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어느새 어르신 그 한 마디 한 마디가 희곡으로 전환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스스로를 칭찬하신다. 자연스럽게 발견한 새로운 사실에 대하여 이제는 스스로를 다듬고, 노력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 모습과 체험에서 원리를 깨닫는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의 출발점에서 계신다.

### <강사 및 참여자 후기>

#### 주강사 후기 (안숙화)

수업 시작 시간은 아직 30분가량 남았지만 이미 두 세 어르신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에 종종 걸음으로 복지기관 강당으로 들어선다.

“선생님 지는 진작 와 있었습니더”, “아이고 어머니 내 그럴 줄 알고 저도 부리나케 달려 왔습니더” “선생님 지는에 다리가 아픈데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쉬어라 했지만에 일주일동안 이 날만 기다렸는데 우째 쉽니꺼? 요래요래 다리를 끌고 왔습니더”, “하이고 우짜노 이래 부어서” 하면서 안아드리면 어린 냥 부리듯 부은 다리를 보여 주시며 절룩거리시며 걸으신다. 들어오시는 어르신들마다 “선생님예” 하시며 일주일 동안 있었던, 사연이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반가운 모습으로 안거나 하이파이브를 하시며 마음 담긴 진심어린 느낌을 전달하신다. 2018년 변함없이 지역특성화 주강사 역할을 맡으며 어느 듯 횡수로 5년이 넘어간다. 그동안 공연과 교육, 두 가지 과제를 병행해야 되는 압박감과 수업 참여 대상자들이 노인이라는 또 다른 난제는 이꿈이 역할을 하는 강사로서는 고민과 갈등하는 시간이 많았다. 인간에 대한 연민으로는 예술을 논할 수 없었고 교육을 진행하기에는 인생의 경험이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자칫 누가 되지 않을지, 늘 외줄을 타듯 번민하는 강사였다. 어르신들의 신체와 인지적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며

예술적 가치와 교육적인 내용으로 수업을 준비하려 최선을 다하였지만 매 차시 마치고 나면 무언가 아쉬움이 남았다. 그러면서 진행하시는 다른 선생님과 기획 선생님과 의 면담을 통하여 그날 수업에 대한 논의와 다음 차시 수업에 대한 연구는 조금씩 수정되고 그럼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어진다, 또한 부족해서 오는 난처함은 어르신들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저절로 해결되는 순간들이 많았다. 어르신들의 연극 수업에 대한 열정은 이꿈이에게 강사로서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었고 인생의 통찰에서 오는 무언의 가르침은 오히려 강사들을 가르치기에 충분하여서 이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나름대로 교육연극 수업에서 다양한 놀이를 통하여 인간적인 교류와 상호작용을 위한 수업은 서로 친밀감을 높였고 예술적 사고를 위하여 자신의 관념을 뛰어 넘어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통한 예술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를 끌어낼 수 있었고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갖가지의 상황을 즉흥을 통하여 자연스런 연기술로 익혀 어르신들에게 자신감과 자존감을 향상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러는 동안 어르신들은 서로 보듬고 배려하며 도와주는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어 오히려 수업진행에 큰 버팀목으로 다가왔다. 이꿈이를 믿고 의지하는 만큼 매 차시 수업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는 어르신들이 계셨기에 이꿈이는 매 차시 발전해 나가는 강사라고 말하고 싶고 이러한 공은 모두 어르신들에게 돌려도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싶다. 곧 있을 연극 공연에 모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달빛 연극반 어르신들!

진짜 진짜 사랑합니데이!

기획을 담당하신 선생님은 바리스타 역을 자처하시며 어르신들을 항상 먼저 기다리고 계신다. 30분전부터 시작된 수업을 위한 출근은 어르신들에게 또 다른 재미로 자리 잡았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듯이 모두 준비된 즉석 카페에서 녹차, 호박차, 약차, 생강차, 코코아등 일반 커피숍을 방불케 할 정도의 다양한 차와 기획 선생님이



어르신들의 입맛에 맞는 원두커피까지 준비한 차를 일일이 배달하시며 강사들과의 격의 없는 농담과 수다로 수요일 아침을 연다.

2018년 수요일 아침의 향기가 가슴 속 깊이 남아 있다.



#### 참여자 후기

**전영희** : 의사 선생님이 무릎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연극 공연 마치고 할랍니다. 일주일 동안 연극하는 날만 기다리는데 내가 서운해서 안되겠습디더.

**주일원** : 86세, 이 나이에 연극을 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권정자** : 내 인생에서 연극 없이는 재미가 없습니다.

**이분기** : 선생님, 연극을 하면서 마음에 담아 두었던 병이 싹 갔습니다.

**조석희** : 저를 보고 여기 들어오려는 사람이 줄을 섰습니다.

**이칭자** : 연극을 하면서 좋은 이웃도 마이 사귀고 좋은 선생님들을 알게 되서 너무 행복합니다.

**김순이** : 이번에는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있어서 빠질까 했는데 도저히 안되겠습디더

**태정숙 :** 며느리가 손자를 좀 봐 달라고 했지만 저도 제 인생이 소중한  
기에 모른척하고 엄청 바쁘다 했지만 손주들한테 미안하네에

**염계자 :** 내 인생에 버킷 리스트에서 꼭 한 가지를 이루고 싶었던 것이  
연극이었습니다.

**최순자 :** 이렇게 나와 연극하면서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많이  
웃고 놀러 다니고 이게 내 인생에 봄날이지 않나 싶습니다.

**전광자 :** 아나바다 장터를 하면서 봉사의 소중함도 느끼고 나눔의  
기쁨도 알았습니다.

**천선자 :** 선생님이나한테 잘한다고 늘 칭찬해 주시니까 젊었을 때부터  
했으면 하는 후회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박기순 :** 제가 연극을 할 수 있다니 꿈만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귀연 :** 메타세콰이어도 가고 거창도 가고 또 공연도 하고 복도 복도  
이런 복이 없습니다.

**정경희 :** 늘 한결같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선생님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 그림책과 덩굴덩굴 놀다

햇살나무도서관



- **단체기관명** : 햇살나무도서관

---

- **프로그램명** : 그림책과 덩굴덩굴2

---

- **향유기관** : 햇살나무도서관

---

- **교육분야** : 전래놀이, 테이블인형극

---

- **교육대상** : 전래놀이와 그림책을 좋아하는 지역주민

---

- **단체소개** : 1. 아이들에게 '침'과 '꿈'을 주기 위해 엄마들과 교사들이 힘을 모아 만들고 운영  
 2. 책 읽는 곳을 넘어 마을을 향해 뻗어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는 마음으로 우리 마을의 공동체 문화를 되살리고, 함께 아이를 키우며 세상과 소통하는 따뜻한 도서관이 되고자 한다.

---

- **프로그램 소개** : 그림책을 통해서 놀이를 만나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타인의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관계촉진과 인형극을 통해 사랑을 만나고 다양한 방법의 책임기를 경험하게 된다.

## 1. 용감한 엄마를 만나다

살아가면서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가끔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조금은 어색함 속에서 각자 참여한 동기와 수업에 바라는 점 등을 이야기 나누며 서서히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었다. 작년 참여한 언니의 적극적 추천으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소개하며 데리고 온 아이가 백일이 안 되었다고 하여 다들 놀란 토끼눈이 되어서 벌써 외부활동으로 데리고 나와도 되나하는 염려의 눈빛을 보내고 있는데 7살, 5살, 3살 아이가 있다는 소리에 우린 모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다. 모두들 멋지다. 용감하다. 대단하다 등으로 놀람을 표현하기 바빴다. 그러면서 아이를 데리고 힘들어서 할 수 있으려나 했는데 기우였다. 아이는 2시간 동안 우리가 시끄럽게 웃고 떠드는 상황에서도 편하게 잠을 자고 있었다. 모두들 용감한 엄마에게 복 받았다고 어떻게 저렇게 순하냐고 또 한마디씩 한다. 이렇듯 우리는 마을 안에서 우리가 모르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며 나도 돌아보게 되는 것 같다.



## 2. 시끌벅적 가족캠프

아이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우리는 엄마.

엄마라는 이름에 담긴 수많은 역할과 번잡함과 고단 함속에서도 한줄기 빛처럼 힘을 얻는 것은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다. 이 웃음소리를 듣기 위해서 많은 엄마들이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기도 한다. 이 다양한 경험을 채우기 위해 엄마들이 그림책과 덩굴덩굴에 왔을 것이다. 가족캠프는 그래서 꼭 프로그램에 넣는다. 아이를 키우면서 여행을 떠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수업 참





여자가 모두 여성이고 엄마이다 보니 아이들과 함께 하는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러나 캠프준비는 만만치 않다. 장소부터 밥 준비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이동하는 것은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했다. 그런 수고도 잠시다. 숙소 앞의 작은 풀장에 환호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엄마들과 우리는 또 기분이 좋아진다.

40명의 밥을 챙기면서 이런 복새통이 따로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는 밥을 직접 하는 무서운 계획은 안세우리라 다짐했는데 다들 맛있게 먹어주니 또 행복하다.

저녁에 아이들과 엄마들의 놀이 한 판이 시작되었는데 놀 때는 아이와 어른이 따로 없다. 모두 동심으로 돌아가 경쟁이 치열하다. 놀이 안에서 아이들은 또 얼마나 많이 싸우고 부대끼고 친해지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서 그 또한 재미있다.

그림책 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갯벌 놀이, 물놀이 시끌벅적한 캠프가 안전하게 잘 마무리되었다.



### 3. 인형극을 준비하며 삶을 이야기하다

그림책과 덩굴덩굴, 우리 함께 덩굴덩굴.

우리는 모두 같은 마을에 사는 지역주민이어서인지 좀 더 빨리 친해지기도 하고 더 가깝게 느끼나 보다. 가끔은 삶이 바쁘고 고단해도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수다 한판 펼치고 나면 또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곤 한다.

우리 모두 덩굴덩굴 놀이가 끝나고 이번에는 인형극을 준비한다. 어릴 때 종이로 때론 천으로 만들 어봤던 인형을 그림책을 가지고 등장인물들을 표현해야 된단다. 누구는 나는 똥손이라 안된다. 나는 만들기를 한 번도 안 해봤다. 꼭 발표해야 되나 등등 고민도 걱정도 산더미다. 하지만 나는 안다. 또다시 어느 곳에 숨었던 끼들이 스멀스멀 나타나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표현해내리라는 것을...

각자 좋아하는, 감명 깊었거나 누군가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책을 선정하러 했는데 대부분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고르고 있다. 천상 엄마다. 그 모습이 아름답다가도 안쓰럽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언제 어디에서 얼마나 찾을 수 있으려나.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는 또 삶을 이야기한다. 어떤 장면들이 아이를 감동시켰는지, 아이 키우기는 왜 그렇게 힘든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키웠는지, 남편은 육아를 도와주는지... 끝없는 삶의 연속이다. 그림책은 우리에게 삶의 질문을 던지는 듯하다.

그리고 열심히 인형을 만든다.





### <강사 및 참여자 후기>

#### 주강사 후기

그림책을 들여다보고 이를 테이블 인형극을 만들어서 내 아이와 함께 놀아볼 수 있고 확장시켜서 우리 동네의 아이들에게도 들려줄 수 있도록 방향을 잡은 것은 도서관이라서 가능하다고 본다. 햇살나무도서관은 특히나 작은 도서관이라 이용자와 가족적인 유대감이 있다. 분기별로 열어놓은 공개수업과 가족캠프를 통해 공동의 육아의 장을 함께 하기도 했다.

#### 참여자 후기

아이의 같은 반 친구 엄마가 같이 하자고 해서 얼떨결에 하게 된 그림책과 디깁글. 이런 모임은 처음 참여하는 거라 사실 걱정도 많이 하고 전부 모르는 엄마들이라 부담도 되고 했는데 다들 너무 좋으신 분들이고, 특히 강사 선생님이 너무 재미있으셔서 재미있게 수업하고 있다. 지금은 테이블 인형극을 준비하며 인형들을 만들고 있는데 처음이라 어색하긴 하지만 정말 재미있고 기대도 된다. 내년에도 이 디깁글을 다시 한다면 하고 싶고 다른 엄마들에게도 소개하고 싶다.

III.

#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 경상권 연수



## ■ 사업개요

- ▶ 사업명: 2018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운영단체 경상권 합동 연수 『바람~바람~바람~』
- ▶ 일 시 : 2018. 6. 21. (목) ~ 6. 22. (금)
- ▶ 장 소 : 광주광역시 일원
- ▶ 인 원 : 58명 (부산 12명, 울산 30명, 경북 16명)
- ▶ 내 용 : 문화예술교육 단체 사례 공유 및 기관 탐방

## ■ 목적

- ▶ 부산, 울산, 경북지역 문화예술교육 주체들 간 네트워크 구축·확대 및 역량 강화
- ▶ 광주 지역에 기반한 문화예술교육 사례 워크숍과 공간탐방 및 지역문화예술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현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되는 소통의 장 마련

## ■ 일정

2018년 6월 21일(목) ~22일(금)

-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 ‘파킹찬스’, ‘베트남에서 베를린까지’, ‘아시아의 타투’ 기획전시 관람
-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 시립청소년특화시설 방문
- 감성빛다도예 : 부엉이캔들홀더 만들기
-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아트스페이스: 홀로그램극장, 기획전시관람
- 광주북구문화의집: ‘바퀴달린학교’ 사례 발표 (정민룡 관장)





# 2018 부산·울산·경북 경상권 합동 연수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조사 (총 12명 중 11명 작성)

◎ 참여자 기본정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2)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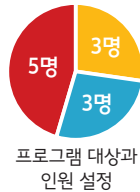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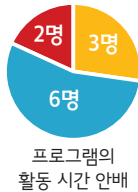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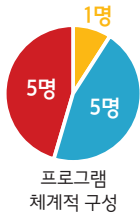
3) 문화예술교육에 종사하신지 몇 년 정도 되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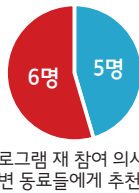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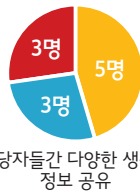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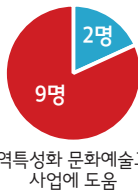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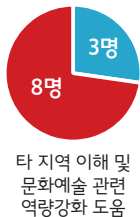
4) 경상권 연수 참여 경험이 있으십니까?



◎ 경상권 연수 프로그램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매우그렇다 + 약간그렇다 = 85%)



매우그렇다  
약간그렇다  
보통이다



◎ 가장 인상 깊었던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 1위
- 청소년 살디자인센터
- 2위
- 바퀴달린학교
- 3위
- 아시아 문화의 전당 기획전
- 4위
- 빛고을아트스페이스
- 5위
- 감성빛다도에

◎ 향후 경상권 연수를 통해 방문하고 싶은 지역과 기대하는 프로그램(강의, 탐방, 관람)은 무엇인가요?

- 제주 : 지역에서의 공공예술 및 공동체 속에서의 예술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는 단체 탐방
- 춘천 : 축제운영에 대한 프로그램, 인형축제와 같이 지역의 설화를 활용한 사례 등
- 인천, 경기지역

◎ 경상권 연수 개선 및 기대사항에 대해 작성해 주십시오.

- 지역 단체 담당자 간 교류의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체험시간 및 개인 탐방 시간이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 너무 많은 인원이 함께 다녀 지역별 공유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다시 오고 싶을 만큼 프로그램 내용은 알았습니다.

IV.

## 전문가 컨설팅





## ■ 목적

사회문화예술교육 분야 지원사업의 확대와 지역주민 대상의역량강화 사업들이 양적으로 확산되면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추진 방향 설정 및 효과적이고 실천적인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단체들의 맞춤형 컨설팅 필요성 제기

## ■ 운영내용

- ▶ 수행단체와 컨설팅 전문가 간 매칭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 지원
- ▶ 사업 담당자 현장 모니터링: 현장점검을 통한 사업추진현황 관리
- ▶ 컨설팅 전문위원과의 인터뷰
  - 맞춤 컨설팅을 통한 운영지원 방안 마련
  - 차년도 사업 방향 설정 및 의견 수렴

## ■ 기간

- ▶ 기 간 : 2018년 6월 26일(화) ~7월 30일 (화)
- ▶ 대 상 : 2018년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수행 단체 (총 17개 단체)
  - 일반 1그룹 : 총 8개 단체 (극단여정 외 7개)
  - 일반 2그룹 : 총 7개 단체 (문화소통연대이야기 외 6개)
  - 기 획 형 : 총 2개 단체 (모이다아트협동조합, 함께사는문화마을공동체)

## ▶ 컨설팅 위원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font-size: 3em; margin-right: 10px;">(</div> <div style="margin-right: 10px;"> <p>이창민 (주)사이트플래닝 건축사무소 실장</p> <p>신미영 행복발전소 대표, 행복마을 자문위원</p> </div> <div style="font-size: 3em; margin-left: 10px;">)</div> </div>	지역연구 사업과제 연구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font-size: 3em; margin-right: 10px;">(</div> <div style="margin-right: 10px;"> <p>박응희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부장</p> <p>이미연 연극놀이연구소 &lt;As if&gt; 소장</p> <p>장윤정 맨발동무도서관 그림책 강사</p> </div> <div style="font-size: 3em; margin-left: 10px;">)</div> </div>	교육개발 및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 ■ 추진절차

	(재)부산문화재단	수행단체
1단계	컨설팅 전문위원 구성	수행단체 대상 사전 수요조사서 작성 및 제출
2단계	수행단체 대상 사전 수요조사	수행단체 대상 사전 수요조사
3단계	컨설팅 전문위원 사전 회의 (컨설팅 지표 재구성 및 단체 매칭)	컨설팅 전문위원 매칭 및 컨설팅 일정 조율
4단계	수행단체 전문가 컨설팅 실행 (6~7월)	수행단체 전문가 컨설팅 실행 (6~7월)
5단계	컨설팅 지표 작성 후 취합 (8월)	컨설팅 내용을 토대로 운영방안 또는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수정, 보완 및 적용
6단계	컨설팅 전문위원 및 수행단체 간 간담회 개최 (8월)	

##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정책목표에 맞게 지역에 뿌리내리고 사업의 정체성을 구축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단체의 질적 성장을 도움
- ▶ 부산지역의 문화예술교육 핵심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단체의 전문성 제고
- ▶ 차년도 사업공모 심의 시, 모니터링 및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우수단체·프로그램 선별

# 2018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수행단체 컨설팅 결과 논의

## ■ 2018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컨설팅을 위한 역할

### ▶ (재)부산문화재단

- 수행단체 간담회를 통한 자체 평가 실시
- 사전 컨설팅 전문위원 회의
- 컨설팅 전문위원/수행단체 매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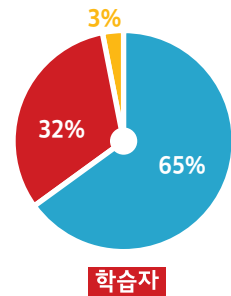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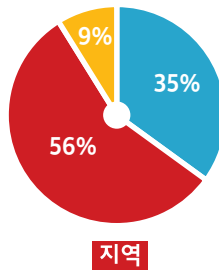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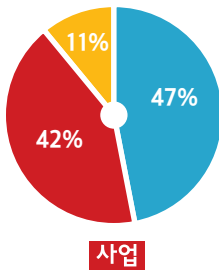
### ▶ 컨설팅 전문위원

- 전년간의 지역·문화예술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분야별 전문위원 구성
- 단체자료와 진단지표를 토대로 컨설팅 이슈 발굴
- 컨설팅 진행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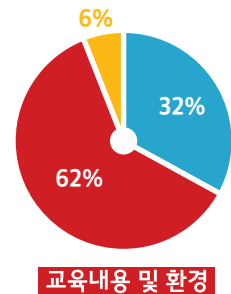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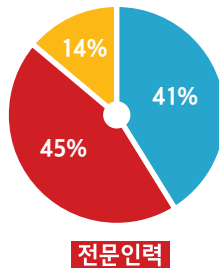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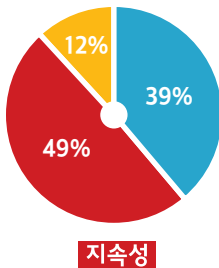
## ■ 2018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수행단체 전문가 컨설팅 결과 (7.31.기준)

▲ 양호 ▲ 보통 ▲ 미흡

### ▶ 사업이해도



### ▶ 전문역량



## ■ 전문가 의견

간담회



극단여정



2년째 같은 지역에서 지역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에 비해 올해는 협력기관과의 협조체계도 잘 이루어져 있고 청년단체라는 특성상 젊은 기운으로 활기차게 참여자들에게 다가서고 있고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에 즐겁게 참여하고 있음.

☞ 제언: 연극이라는 장르를 어떻게 대상에 맞게 프로그램화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해와 실험이 더 필요함. 어르신들과의 연극 작업이 창의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단순히 대본을 숙지하고 연기를 지도하는 것에서 나아가 참여자들의 삶의 이야기들이 연극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새롭게 개발하고 도전할 필요가 있음.

현재 창조활력센터의 입주단체라는 점에서 향후 지역의 특성을 살린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 제언: 시민극단이라는 특성상 부산 전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령, 성별, 직업을 가진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해당 지역의 분들이 다수이기는 함. 오히려 해당 지역을 분석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함.

극단해동



### 드림꿈센터



특정 사회약자(20~30대 청년기 장애인)를 대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투입과 눈높이 교육을 통해 제도적 관념 및 편견에서 벗어나 사회 관계형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실효성 있는 교육 진행.

㉮ **제언:** 학습자의 특성 상 밀도 높은 인력투입과 교육에 대한 집중도가 필요한 만큼 주강사의 충분한 인력 확보 필요. 프리마켓(전포동 카페거리)을 통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써 융합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 필요(지역사회의 동의와 유대관계 성립 및 지자체의 지원 필요). 단순 소모성 프리마켓이 아닌 사회 저변 확대 및 인식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성장 기대.

협동조합이라는 단체의 특성상 다양한 장르의 협업이 가능하고 강사진 확보가 용이함. 수년 간의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경험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음.

㉮ **제언:** 당감동의 행복카페를 활성화해서 지역에 문화예술교육 환경을 새롭게 조성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사업 목적이었으나 실질적으로 카페를 이용하는 것은 일반30~50대 여성이라는 점에서 컨텐츠 개발과 지역성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필요함.

### 모이다 아트협동조합



### 모퉁이극장



부산지역 원도심에서 공간을 개척하고 꾸준히 시민관객 교육이라는 실험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획자 및 강사진의 의지와 전문성이 매우 높음.

㉮ **제언:** 시민관객교실은 지특사업 참여 전부터 단체가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사업으로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지특사업이 아닌 방식으로의 새로운 전환점이 모색되었으면 함.

**문화소통연대이야기**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제선정과 기획력을 토대로 지속성 확보. 교육의 성과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으며, 공연기획 능력을 토대로 실천 가능 함.

☞ 제언: 학습참여자는 2016~2018년까지 여성극단 '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민의 참여 확산 필요(남녀노소 불문 연극을 통한 자존감 회복 및 세대별 계층간 소통의 장 필요).부산 내 유사한 프로젝트로 진행 중인 다양한 주체들의 네트워크 및 소통 필요.(공연 경쟁이 아닌 공감대 형성과 공유를 통한 지역사회 일반시민들의 연극공연 문화 형성 가능)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동화랑 놀자'라는 도서관과 관계가 있어 공간의 안전성, 지역에서 오래 활동한 경험이 있음.

☞ 제언: 이전 사업의 진행 정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올해 사업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해보임. 미디어로 소통하려면 마을에 존재하는 다양한 단체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내용과 대상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

**미디어교육연구소**



**바투아트**



생활 밀착형 미술교육이 가능함. 지역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

☞ 제언: 지역문제점 및 현황 진단을 통해 지역민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참여 및 학습인원 확보(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 및 마을 주민 참여가 필수).생태예술 프로그램의 저변 확대를 위해 소규모 텃밭을 비롯한 마을 자투리공간의 활용.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결과물의 전시를 통해 지역민의 자긍심 고취 및 방문객 참여 유도 필요.

### 상상편집소 피플



향유기관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 지특사업이 시작되어, 향유기관에서 교육참여자관리, 진행에 능동적으로 관여하고 있음. 참여자 자신들이 진솔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수업시간에 잘 풀어냄.

☞ 제언: 교육참가자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등의 '열린 수업'을 다른 도서관에서 열어, 일상의 글쓰기, 우리의 이야기가 대해 공감대를 가짐으로 교육참가자 확대방안 고려. 야외수업과 다른 개념의 주민센터 공간이나 아파트 내 썸지공원에서 열린 수업을 진행하여 '지특문화사업'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함.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하기 위해 지역의 자원들과 접촉하거나,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해야함.

다양한 분야의 강사들과 네트워킹이 형성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수준 있는 프로그램 수행이 가능함. 단체의 적극적 노력으로 지역 아파트 관리소에 단체와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직접하여 관리소를 통한 아파트 홍보가 가능하여 참여자 수급은 잘되고 있음.

☞ 제언: 지역의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나 지역의 이야기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찾아내고 참가자들과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

라운이 지역에서 어떤 단체가 될 것인가라는 고민들 참가자들과 함께 하면서 지역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나가는 라운으로 변화를 꾀할 수 있다면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컨텐츠가 있는 소통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 같음.

### 아트커뮤니티센터 라운



### 예술연구소 두드림



주강사 두 분이 교육참가자들과 유대관계를 통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정성을 들여 노력하고 있음. 교육참가자들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춤'을 기본틀로 다양한 작업을 프로그램안에 담고 있음.

☞ 제언: 교육장소인 동구종합사회복지관이 안창마을입구,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노인층이 도보로 접근성이 떨어져서 초기 인원을 계속해서 유지해가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작업이 필요함. 교육 참가자들이 '춤'을 직접만들어 입는 등 적극성을 보이던데 주민이 교육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동아리를 구성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에 대해서도 중간 피드백을 받아 반영하도록 요청. 지특문화예술교육이 참가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진행되되, 향유경험을 통해 의식변화를 이끌어내어 지향점으로 나아가는 것이기에, '안창호랭이마을(회관)'이찬용 대표와 계속 접촉하여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해가야 함. 안창호랭이마을축제에 교육참가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논의하면서 지역연계의 고리를 만들었음을 제안 드림.

**움직임연구소 마르**



춤 전공한 강사여서 몸을 움직이고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고 지역에서 소외되어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많음.

☞ **제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나 어르신들의 요구를 표현하게 하고 반영하는데 경험이 더 필요해 보임. 이번 사업을 통해 마르가 지향하는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자신들이 하고 싶은 사업에 대한 상을 구체적으로 잡는 것이 필요해 보임.

노인 세대와 젊은 엄마들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신선함이 있음. 마을의 작은도서관을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새로운 시도가 좋고 홍보를 위해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이 계신 곳을 발로 찾아다니는 노력이 돋보임.

☞ **제언:**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기록하는 작업이든, 마을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만드는 작업이든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러한 작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 어르신들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 젊은 세대와 어르신들이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임.

**커뮤니티아트센터 '숲'**



동래구와, 희망정류소의 다른 상주단체들과 정기회의를 통해 단체 간 협력과 시너지효과, 참가자의 확장, 지역자원과의 활용과 연계를 도모하고 있음. 다양한 참가자를 배려하여 서로 다른 프로그램과 내용으로도 운영하고 있음.

☞ **제언:** 2017년 희망정류소의 지역특성화특성화 사업 참가들 중 지속적인 참가자가 거의 없어 아쉬움. 동래지역의 문화·역사자원을 더 잘 알게 하는 '감지덕지도게임' '현장학습' '오감동래 차정데이'에 수행주체들이 더 고민하고, 희망정류소의 상주단체들과 연대하여 준비해야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임.

3시간동안 참가자가 되어 보고 인터뷰를 해보니, 참가들의 1/3이 상이 심리치료 경험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여 구심을 만들어내고 있고, 강사분들이 세심하게 한 분 한분이 살피서, 참가자 상호간의 교류의 흐름을 잘 만들어내고 있었음. 만족도가 높은 만큼 앞으로 이 분들이 일상의 삶을 공유하는 '심리치료동아리'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강사가 이끌고 가야함. 내년도 이분들이 중심이 되어 2기 '심리치료동아리' 구성을 돕고, 수업의 보조진행자로서 역할을 해 낼 수 있다면 성공적인 프로그램이 될 것임.

**함께사는 문화마을 공동체**





### 클래식 라디오



지역의 특성 및 이해도가 높으며, 학습자를 위한 눈높이 교육방식을 통해 교육 이해도 및 결과 도출이 가능하다고 판단 됨. 다양한 장르(음악, 미술, 연극 등)의 문화예술교육을 통합하여, 새로운 교육 장르를 개척하였으며, 발전 가능성 및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 됨.

☞ 제언: 지역 내 다양한 공동체 및 거점공간 활용을 통해 통합문화예술교육 확대 필요 함. 고정동 도시재생관련 고정세들사업, 행복마을만들기,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 등 공동체 구성 및 거점 확보가 되어 있는 곳에서 지자체와 연계 협약하여 지역특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확산 가능하다고 판단 됨.

지역 내 고령자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과 학습자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현황 및 문제점 인식에서 시작한 주제 선정 등 사업의 이해도가 높으며, 중장기적인 프로그램의 비전 및 교육모델 제시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 됨.

☞ 제언: 프로그램 진행을 토대로 다양한 계층의 참여 및 지역사회 공헌에 대한 고민과 함께 부산 내 유사한 프로젝트로 진행 중인 다양한 주체들의 네트워크 및 소통 필요.(공연 경쟁이 아닌 공감대 형성과 공유를 통한 지역사회 일반시민들의 연극공연 문화 형성 가능)

### 햇빛연극단



### 햇살나무 도서관



지역의 사업에 대한 개념과 지향점을 잘 이해하고 있고, 지역과 참가자들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음. 참가자 대부분과 수년간의 친숙하게 지내고 있고 소통이 원활하며 안정적으로 프로그램 지원하고 있음.

☞ 제언: 햇살나무도서관은 주민 스스로 만든 지역의 작은 도서관으로 토요일다락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8개의 동아리들이 활발하게 돌아가는 주민들이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공간이고 문화·교육공동체임. 좋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역문화공동체로서 조직(동아리)들이 역동성을 갖고 지역문화예술교육과 네트워킹하는데 수행주체들이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함. 지금까지 참여자들의 욕구를 찾고 그에 매칭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까(서비스적 측면)라는 고민에서 나아가 조직가로서 '동아리'가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내부의 구심(리더)을 세우고, 역동성을 만드는데 에너지를 쏟아야 함. 다년간 서비스제공자로서 충실했던 그간의 성과를 토대가 되었기에 자율적 동아리로서의 성장이 가능해 보임.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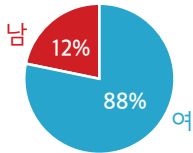
## 참여자 만족도 (개별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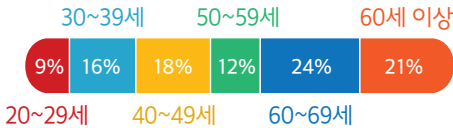
# 참여자 만족도 (총 17개 단체, 425명 참여)

## I. 참여자 기본 사항

1. 본 설문에 응하시는 참여자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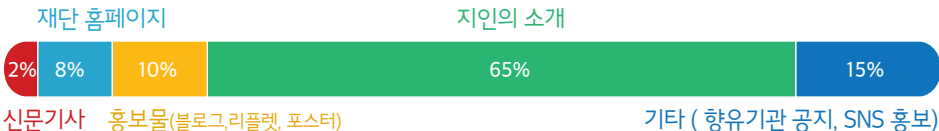


2. 연령대가 어떻게 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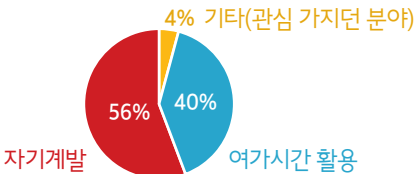


## II. 지역특성화 문화예술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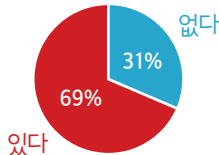
1.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2.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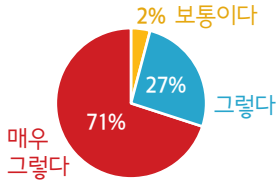


3. 이전에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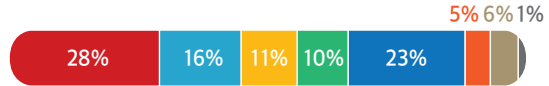


### III. 지역특성화 문화예술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1.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1-1.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하신다면 어떤 점에 만족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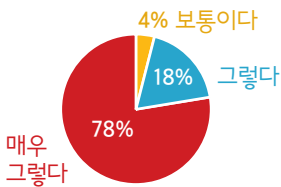
- 강사진
- 교육 장소
- 교육 시간
- 지역문화와의 연계성
- 프로그램 주제 및 구성
- 프로그램 진행 시 제공되는 자료
- 프로그램 내용 및 결과물
- 기타

2.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우리의 지역의 문화와 예술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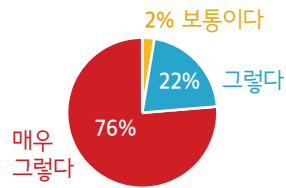


### IV. 지역특성화 문화예술프로그램 참여 지속여부 및 건의사항

1.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2. 주변의 지인들에게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추천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3.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감 및 기타 의견

**소감** 마을을 알아보는 새로운 견해를 배운 것 같아 늘 기다려지는 수업이었다.  
2년 째 참여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존감도 많이 높아졌다.

**바라는 점** 한시적인 아닌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다양한 분야(전통 포함)의 예술프로그램을 깊이 있게 다루는 프로그램이 확대되면 좋겠다.





생활문화본부장: 이미연

문화교육팀장: 하경희

문화교육팀 : 구선미, 이민경, 박영미,  
신나리, 이재은, 조수연

발행인 : (재)부산문화재단

발행일 : 2018. 12.

발행처 : (재)부산문화재단

등록번호 : (재)부산문화재단 2018-023호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 감만창의문화촌 2F

홈페이지 : [www.bscf.or.kr](http://www.bscf.or.kr)

전화 : 051-745-7281~7

팩 스 : 051-743-35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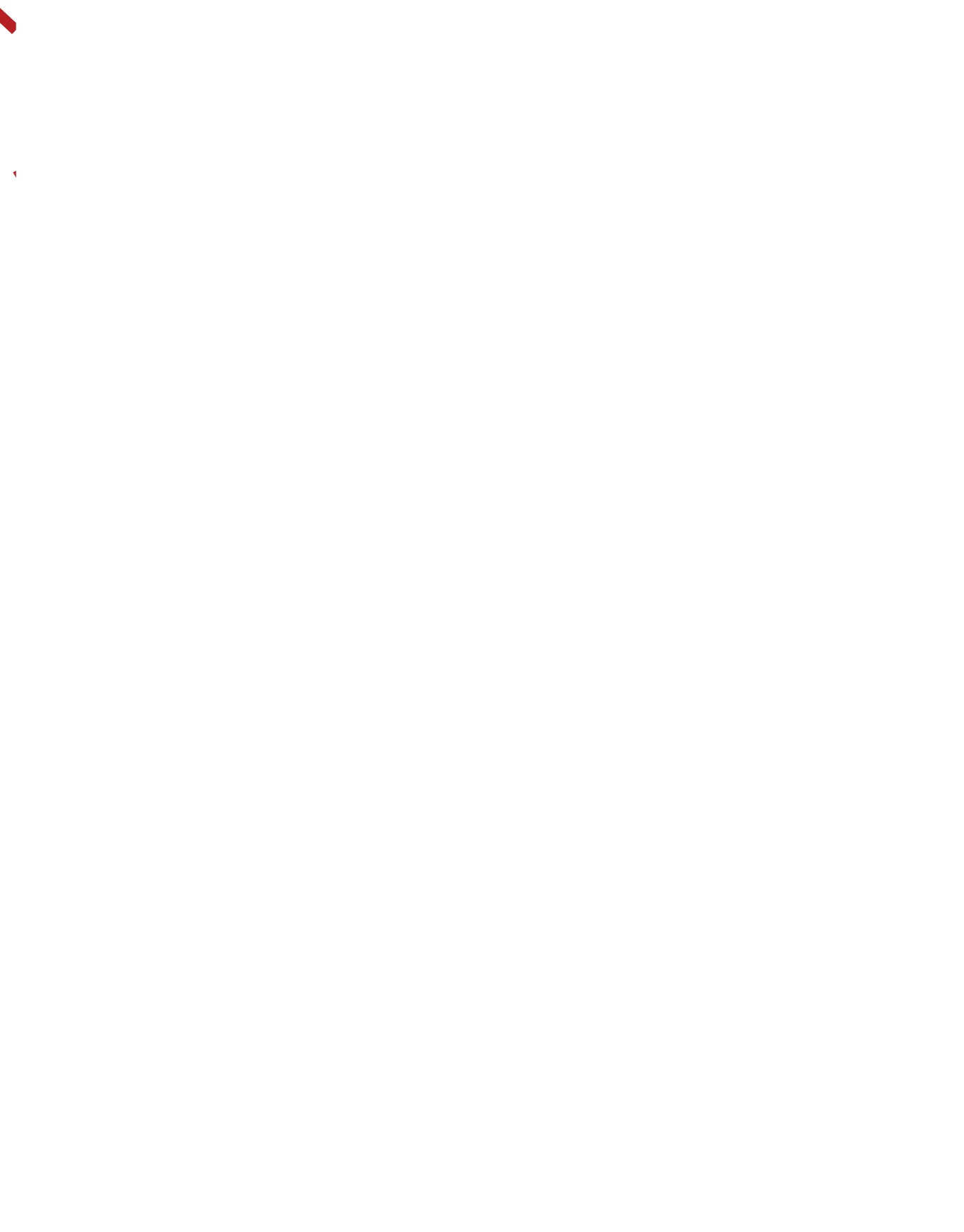
디 자 인 : 스토리머지(STORY MER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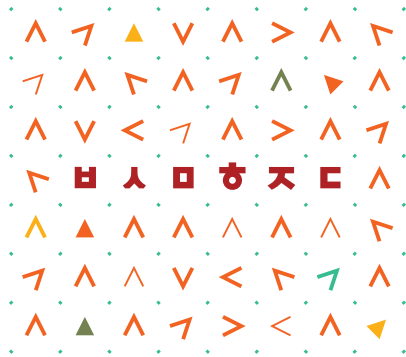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

주 관 : (재)부산문화재단

**Copyright 2018 부산문화재단**

- 본 자료집은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2018년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에 대한 기록과 보존을 위해 (재)부산문화재단이 발행하였습니다.
- 본 결과자료집에 실린 글과 도판은 (재)부산문화재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주관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